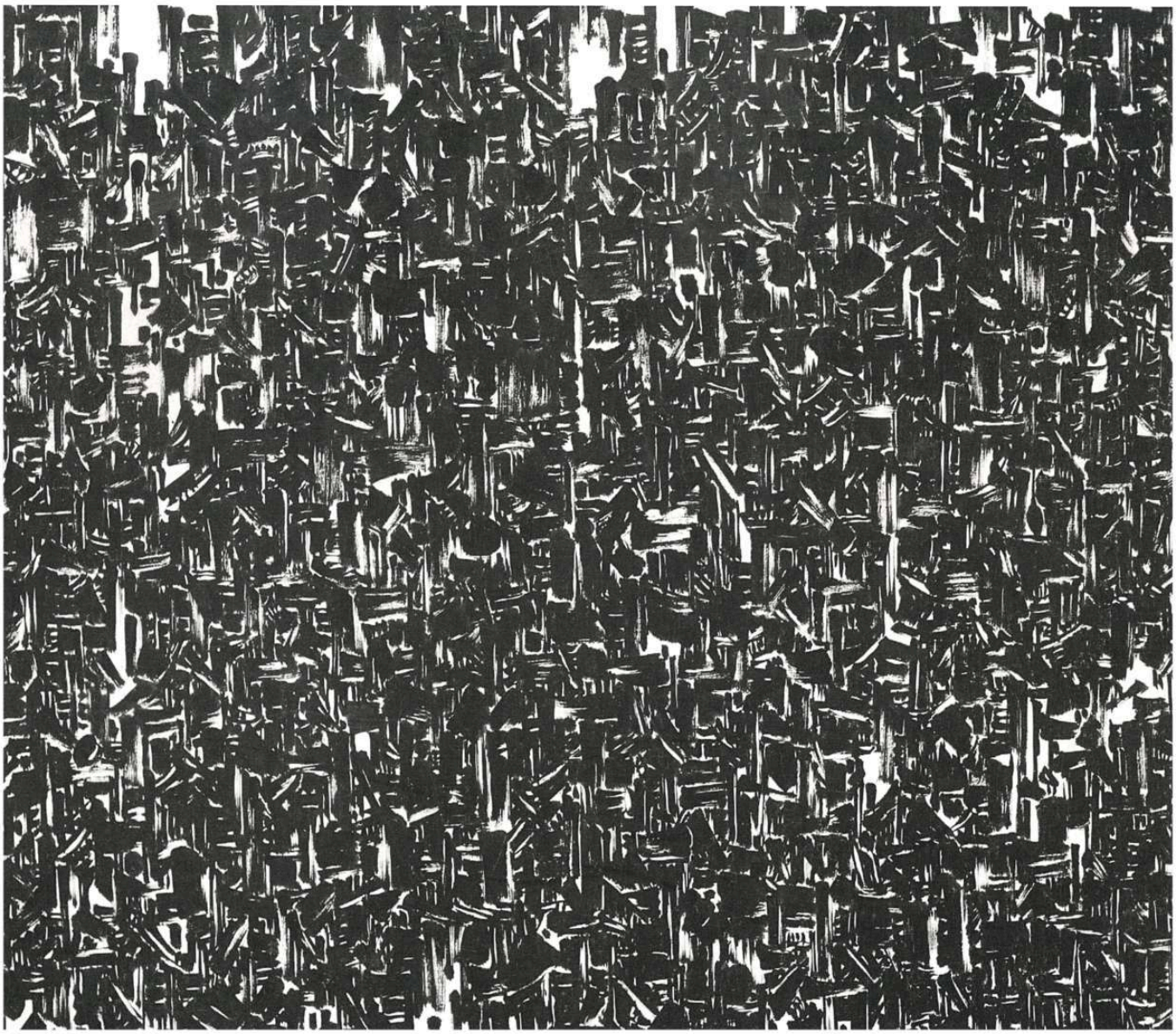
2016년 통권 제23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3. 2016.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유월 2

이 승 훈

개양귀비 물드는 길가
그 철없던 전장(戰場)이 쓸고 간
쓰러진 절간 툇마루
그대 없인 풍경(風磬)도 대답이 없다
밥도 함께 먹는 저녁이 오고
촛불을 켜고 주름살을 세워보면서
누런 이도 보이면서 웃고 싶어라
별이 뜨는 밤을 소쩍새가 울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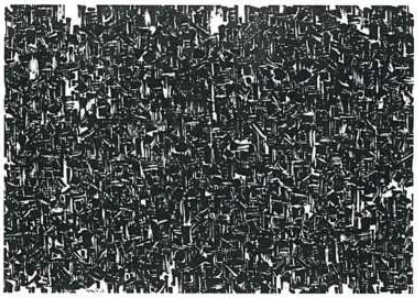




이 승 훈

• 전북 벚꽃 백일장 장원 • 아이올리브 전국공모 최종 가작당선 • 대한문학 신인문학상 • 마한문학상 수상 • 가람시조문학백일장 차상
• 시집 〈빈들의 소곡〉, 〈딸개비 꽃 하늘〉 등 출판 • 미술문화칼럼, 〈감성, 그 시간 속으로〉 출판 • 천청문학동인 활동, 익산문협 사무국장 임
• 한국문학신문 전북본부장, 대성중학교 근무

표지작가안내



city / 97x130cm / 캔버스에 먹, 2016

이 철 량 (Lee, Cheol-ryang)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 1988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 1992 선묘와 표현-현대 한국회화전(호암갤러리)
- 2001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한.중.일 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
-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 2005 한.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 도시와 미술(서울시립미술관)
- 2011 한국화 재발견전(성남아트센타)
- 2012 MANIF SEOUL(한가람미술관)
- 2013 KIAF(Gallery MEE)
- 서울 국제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 현)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35-1

전북회화

전북회화

이천십육년 12월

제23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이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홍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1. 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필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 - 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9. 2	정기 전시(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송현성)
2013. 12. 10~15	정기전(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모임(신입회원-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전시회(도림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초대전(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모임
2015. 12. 10~29	정기전시 (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2016. 11. 18~12. 9	정기전시 (갤러리 누벨백)
2016. 12	통권 제23호 발행

C.O.N.T.E.N.T.S

03 올해의 작가
04 전북회화회 발자취
06 전북회화회 전시리뷰

나의작업노트
08 박성수
09 박지예
10 방정엽
11 송태정
12 안순금
13 이명자
14 이봉금
15 이승훈
16 이진숙
17 이철량
18 이환배
19 정미현

작업실탐방
20 김철규 작가 | 이환배

작업장을 찾아
24 소찬섭 작가 | 정미현

수필
28 변월룡과 어머니 | 이승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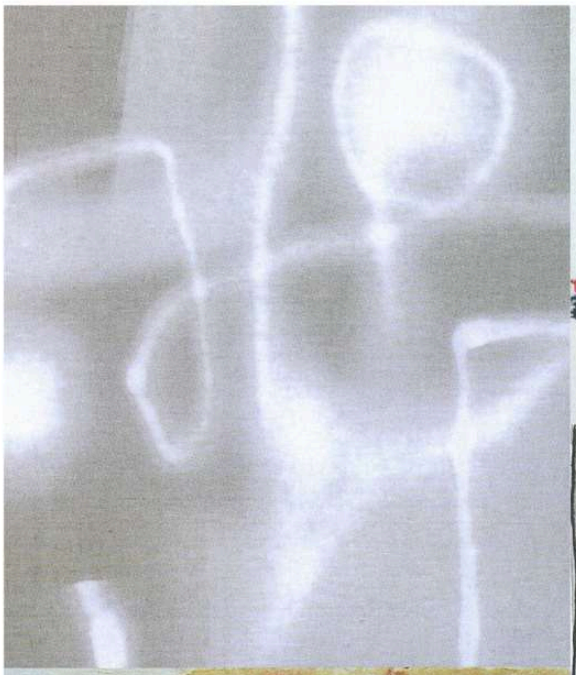
미술관을 찾아서
32 전주 우진문화재단 청년작가회 대만 문화연수를 다녀와서 | 박성수

기행문
38 대마도를 다녀와서 | 이승훈
50 포르투칼의 포르토와 리스본 여행기 | 이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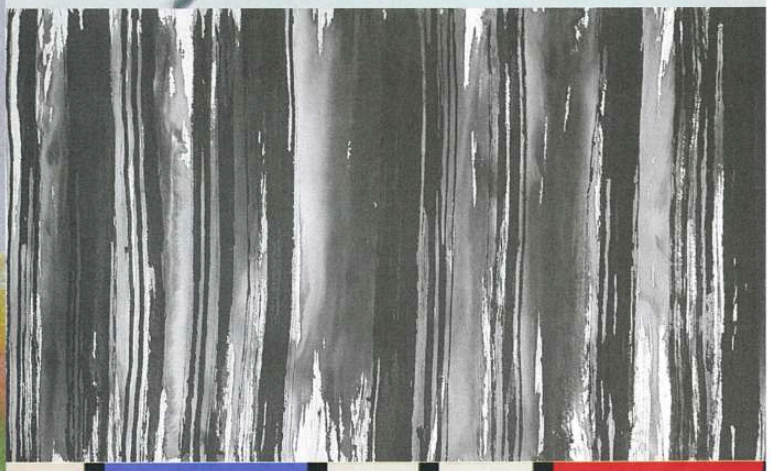
여적
56 · 57 읽을만한 책 / 회원주소 | 편집부
58 편집후기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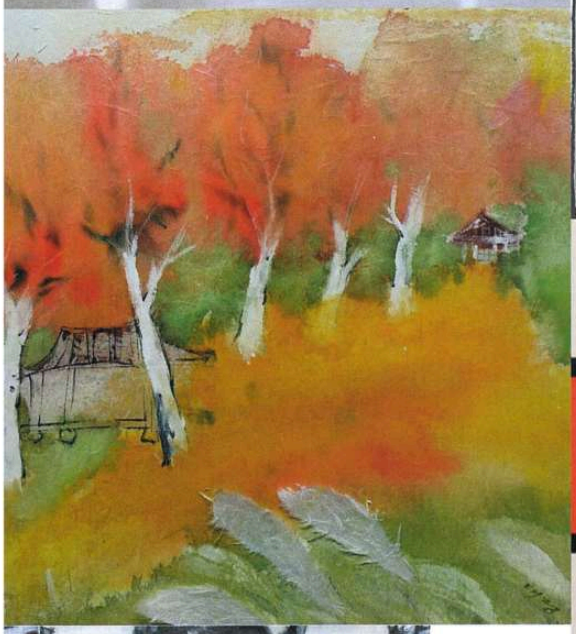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3. 2016.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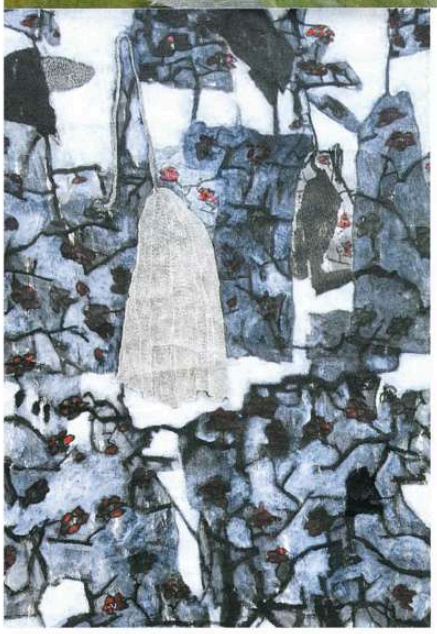














2016 전북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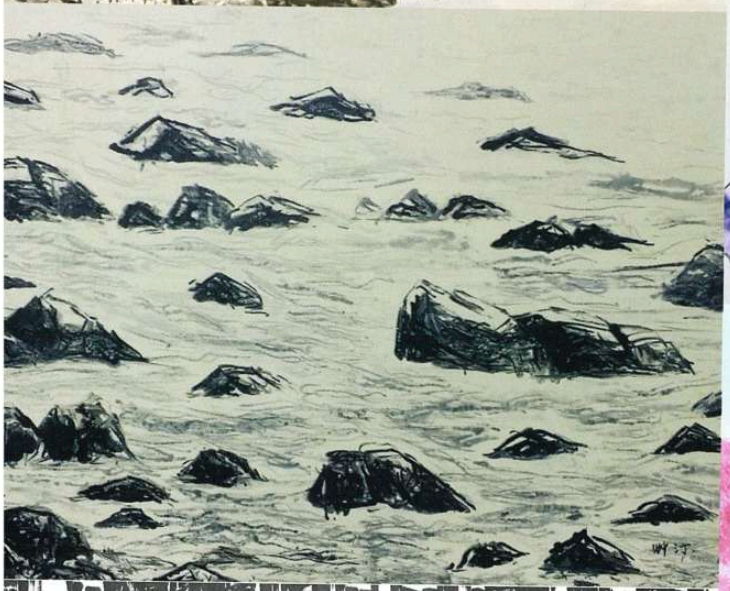
2016. 11. 18(금) ~ 12. 9(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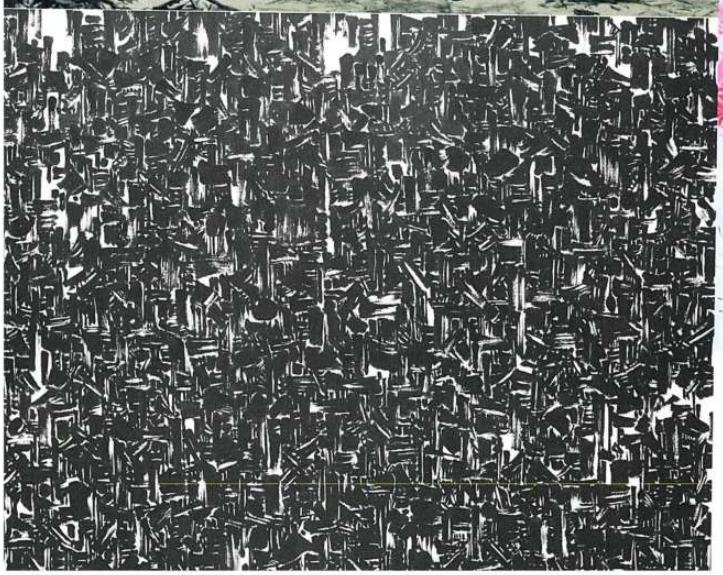
gallery 누엘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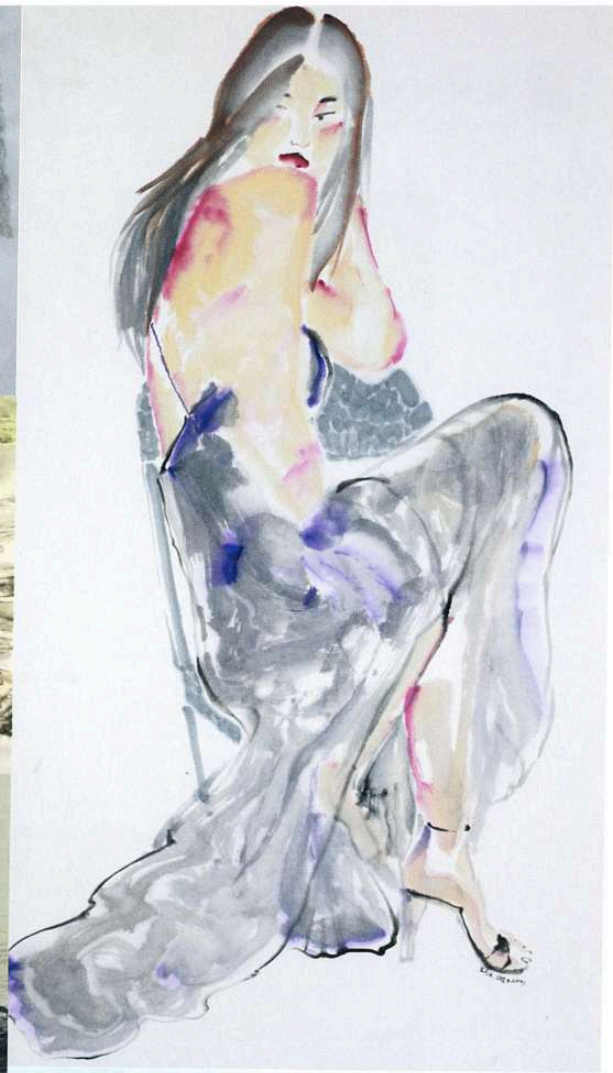
박성수 박지예 방정엽 송태정 안순금 이명자 이봉금 이승훈 이진숙 이철량 이환배 정미현















풍경 이미지 / 67x48cm / 캔버스 천위에 아크릴 2016

스프레이로 그린 우리 일상의 풍경

박 성 수 (Park, Sung-so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 개인전 12회 • 그룹전 100여회 • 현)전북대학교 미술하과 출강
• 경기창작레지던시(2014~2015) •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1~2012 단기)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5-9 • 전화 : 010-9992-3661 • E-mail : sspark0308@yahoo.co.kr



p양 / 70×133cm / 종이에 수묵채색 / 2016

그동안 본인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오며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유기적인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40을 넘긴 나의 모습은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이고 집안일과 직장에서 얻은 여러 일 속에서 나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삶에 지친 모습으로 살아간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러나 인생의 중반이 되면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욕망과 개인의 자유를 원한다.

주제의 옆집여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중년의 여성이며 곧 나를 포함한 우리의 엄마이기도, 당신의 아내이기도, 때론 직장의 동료이기도 하다. 나는 그녀들의 삶의 여러 감정이 미묘하게 드러나도록 인물에 집중하며 화면에 담아보고자 노력 하고 있다.

전시의 주제인 옆집여인은 여인의 형상을 몽환적인 신비감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몸을 반추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며 에로틱한 신체의 몸짓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여인의 여러 감정 속에서 여성의 신체를 통해 사랑과 에로티시즘을 주제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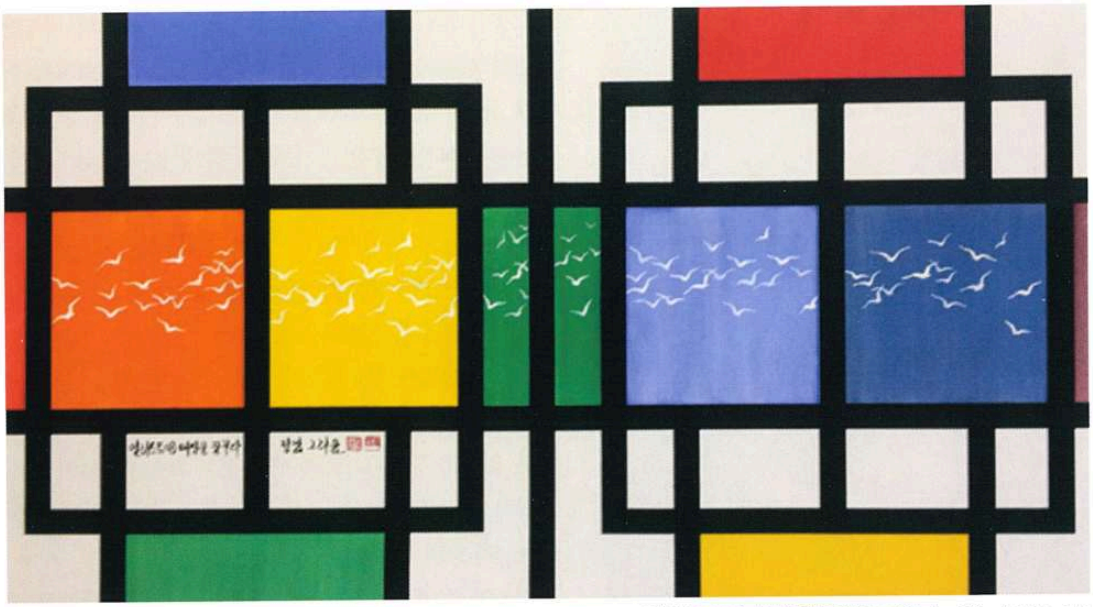
표현기법은 엷은 먹에 굵기의 변화를 주고 작품의 주 색은 여자의 살색을 기본색으로 여러색의 변화와 물의 농도에 따른 번짐은 상당히 에로틱한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모필의 표현에 있어서 붓의 탄력과 속도 그리고 측필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노력한다. 이는 엷은 먹빛에서 오는 부드럽고 우아함과 한편으로는 감추고 싶은 감정의 기복을 강하지 않은 연한 회색빛으로 표현 한다. 이런 부드러움을 살리기 위해 담묵에 호분(흰색)을 섞어 먹에 부드러움과 오묘한 분위기를 강조하려고 한다.

그리고 동양회화의 전통적인 '형(形)에서 신(神)을 얻는다'는 인식으로 섬세하게 실타래처럼 느껴지는 한 중년 여성의 삶을 우리의 이웃이기도한 옆집여인을 통해 한국회화의 전통적인 먹빛과 선의 힘이 어우러진 화면 속에 등장시켜 현대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인은 현대미술의 동양적 접근을 고민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내제된 여인들의 아바타를 표출하여 실험적인 형상과 표현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2015.10. 19 박지예작업노트중에서〉

박 지 예 (Park, Ji-ye)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졸 • 전북대 대학원 박사 • 개인전 4회 • 1980년대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 •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교 · 강사전(전북대학교예술진흥관) 외 다수
• 활동 (원묵회, 전북회화회, 인물작가회, 동질성, 전라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 11/501 •전화 : 010-2658-7822, (집) 063-228-7822



일러스트 08-비상을 꿈꾸다 / 110(cm) x 60(cm) / 천 + 채색

 # 프롤로그 Ⅰ
제자아이가 찾아와 눈물을 펑펑 쏟는다.
교사가 꿈인데 학교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한참이나 어께를 들썩인다.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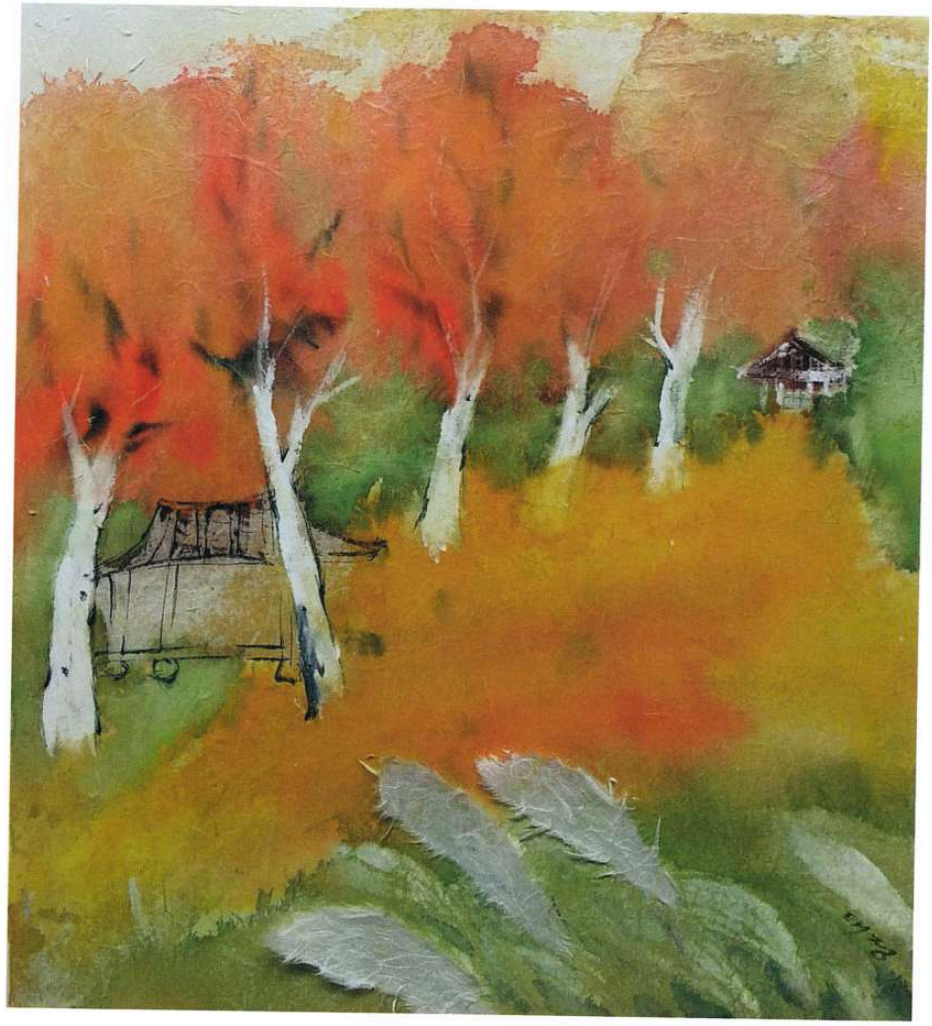
 # 프롤로그 Ⅱ
딸아이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갑자기 훌쩍인다.
학교가 무섭다고.
고립되는 느낌이 너무 두렵다며 한참만에야 기숙사로 무겁게 올라간다.
역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 프롤로그 Ⅲ
전화기 너머로 집사람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재작년 가르쳤던 아이가 죽었다고.
시골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우하게 살다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떨어진 꽃잎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고……

언제부터였는지 내 화두는 아이들이다.
일그러진 사회에서 꿈도 생각도 강요당하고 꿈을 꾸고 노력해도 다가가기 힘든 현실의 부조리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날개 짓 하며 비상할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이 올 수는 있을까…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어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 넣는다.

방 정 엽 (Bang, Jeong-yeop)

• 전북대 미교과졸 • 전북회화회 · 미협회원 • 現) 남원여고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손전화 : 011-681-7127



어느 가을날에 / 42cm×50cm / 한지에 채색 2016

빛깔 좋은 가을날

숲속을 걷다보면

나도 가을이 되는듯 싶다.

송 태 정 (Song, Tae-jeone)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2007-12,개인전3회 (전주소리문화전당) • 2011 아메리카, 미술로 들여보기전(LA-verdugo gallery) • 2013-14 센디에고에 부는 바람전(미국 캘리포니아)
• 2004-14 건지전(세종문화회관, 교동아트센터 등) • 2014 전북회회화전 (인사아트 갤러리) • 그외 다수 그룹전 및 초대전 참여 • 현) 전북미술협회, 건지전, 전북회화 회원
• 현)전북 완주군 동양초등학교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호성로 170번지 진흥더블파크 311동 504호 •전화 : 010-9860-3883 •E-mail : dduknemi@hanmail.net



꽃 – 그리움 / 79×110 cm / 수묵 · 아크릴, 2016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자 했다.

때론 사물에서 멀리 떨어져 그 내면의 깊이를 찾고자 했다.

먹으로 그린 사물에 꽃가지를 그려 마음속에 봄을 담았다.

먹색으로 짙어진 앙상한 나뭇가지에 머지않아 파릇한 새순이 돋고, 연분홍 꽃이 피어나게 될

봄을 간절히 기다리며...

안 순 금 (An, Soon-geum)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 학 · 석사, 영국 코벤트리 대학 석사 • 개인전 3회 – 1997. 얼화랑(전주), 2004. The Glass Case, Herbert Art Gallery & Museum (Coventry, UK.), 2005. 우진문화공간 기획 초대전(전주) • 단체전 및 기획전 : 젊은 세대 새로운 시각과 조형전, 전라한국화제전, 전북도립미술관 개관전-'전북 미술의 조명'
• 現)전북회화회 회원 • 現) 김제여자고등학교 재직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433-1 • 전화 : 010-2635-6314, 063) 546-2517 • E-mail : f12-4@hanmail.net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 115×85cm / 천+아크릴물감+먹물

뉴스를 달구는 여러 소식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즘입니다.

어지러운 마음 때문인지 부드럽게 흘러가는 물 표현은 더욱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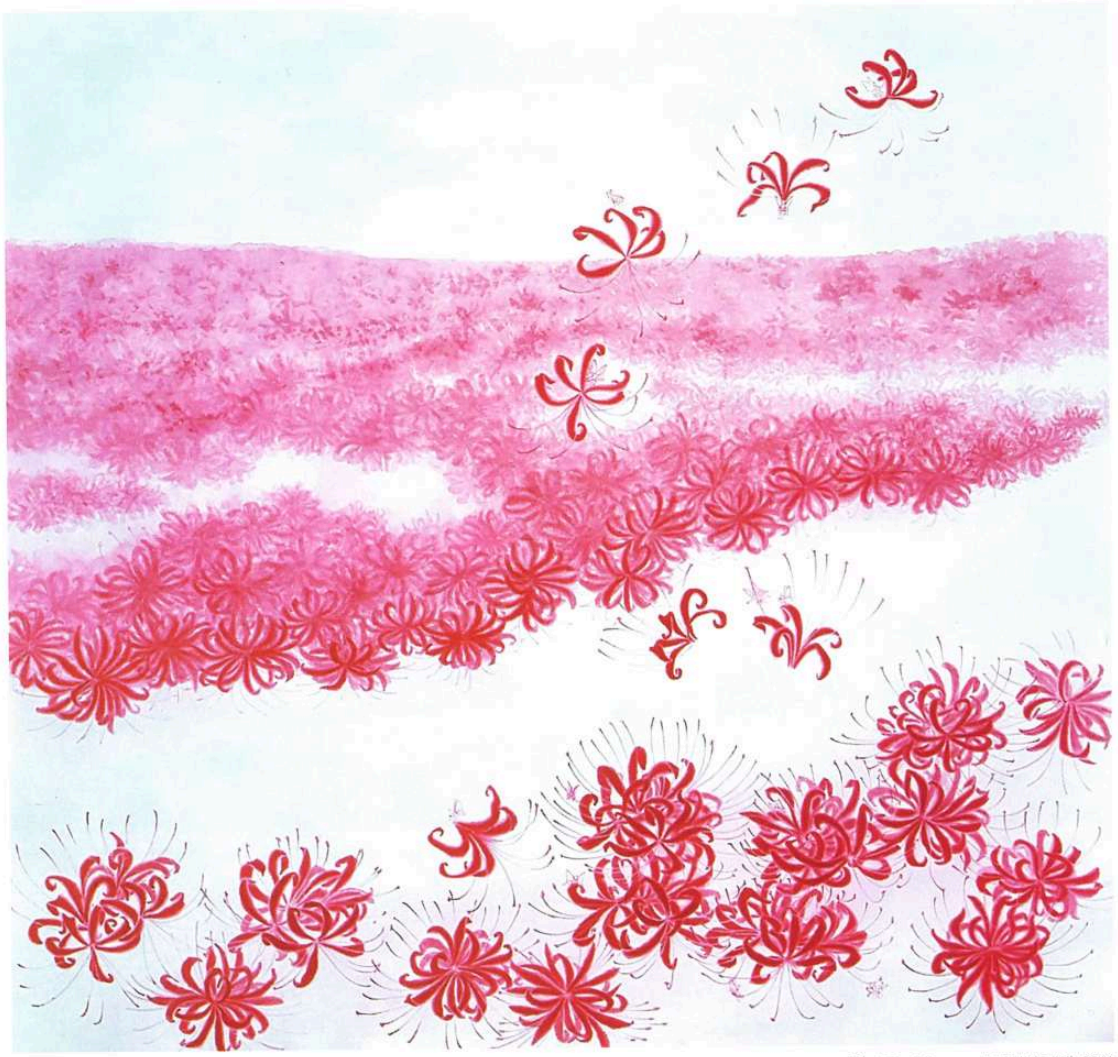
그래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삶을 고민하며 물을 그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물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나도 흐르는 물에 마음을 싣고 싶습니다.

이 명 자 (Lee, Myong-ja)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 졸업 •2010년 2012년 전북아트페어(한국소리문화전당)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입특선 4회
•세계서예비엔날레 입선 1회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대전 입선 1회 •춘향미술대전 입특선 3회 •영호남 미술교류 소통 & 만남전 외 다수그룹전 출품
•현)남원고등학교 교사 •주소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산 4길 111-6 •TEL : 자택(T) : 063 547 5896, 직장(T) : 063 630 7923, 010-8004-5895 •E-mail : mjlee0117@hanmail.net



길 / 72×68cmcm / 장지에 채색 2016

공존 – 길

함께 그 길을 걸을 사람은 가고 없지만 그가 걸은 길이 꽃길이었기를 바래본다.

작은 요정들이 함께한

아름다운 길이었기를 상상해 본다.

이 봉 금 (Lee, Bong-Keum)

• 전북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대학원 졸업 • 개인전 제5회 • 초대전 및 단체전 다수
• 주소 : (560-89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지안리즈아파트 101/504 • 전화 : 010-9277-7231 • E-mail : pumucle200@naver.com



지리산계곡 / 34×70cm / 지본수묵, 2016

강물은 흘러 바다에 이르나 그 물은 변함없이 물인 것이다.

그러나 계곡물은 지리산에 있으니 더욱 청량함과 정결함이 빛나는 것이다.

진리처럼 순수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디에 소용되는 가에 따라서 언제 필요하는가에 따라서 그 순수성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것이다.

머그잔에 따른 것과 찻잔에 따른 것, 밥그릇에 따른 것이 다를 뿐 그 성질은 같다.

나의 마음도 변함은 없겠으나 표현이 다를 뿐이겠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

성찰 없는 행동은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기 때문일 것이다.

이 승 훈 (Lee, Seung-hoon)

• 全州大學 美術敎育科 同 大學院 美術學科 卒業 • 個人展 3回 • 인물 파노라마전 • 전북중견청년작가전 • 익산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 출품 • 시화집 〈빈들의 소곡〉, 〈달개비 꽃 하늘〉 출간 • 미술문화컬럼집, 〈감성 그 시간 속으로〉 출간 • 한국미협, 지붕전, 산묵회, 전북회화회, 아트회, 현대드로잉회 등 會員 • 現)군산대성중학교 재직

• 주소 : 94658 전북 익산시 배산로 91-9, 303동607호 (모현3차 현대아파트) • 직장전화 453-2127, 전화 063)851-0577, (H · P)010-4115-0577 • E-mail : misege@hanmail.net



흔적 / 100×70cm / 요철지에 수묵채색, 2016

얼마 전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에서 천년이 넘게 사는 은행나무를 보았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묵묵히 보아 온 그 은행나무는 그래도 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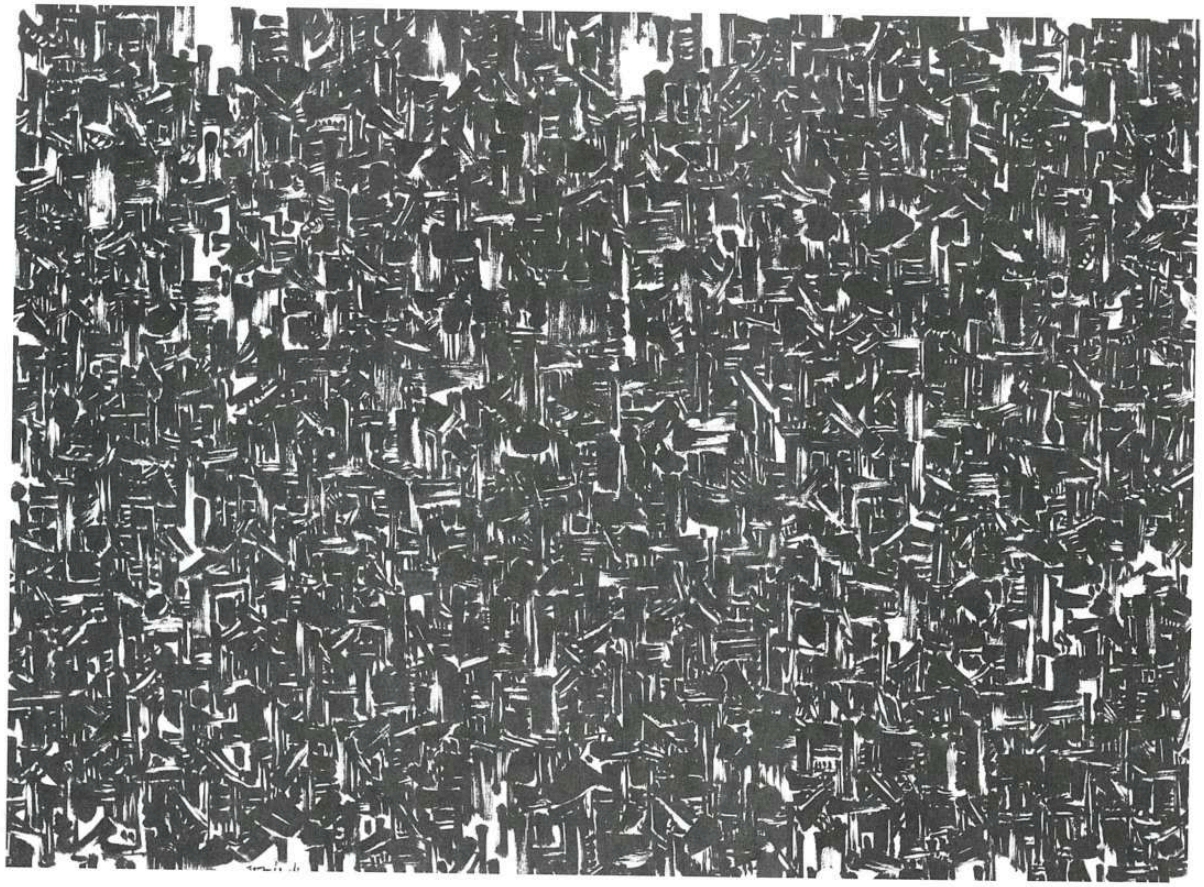
이 가을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 있는 나무 들이 좋다.

세상 시름을 모두 보듬듯 서 잇는 저 나무들을 보면서 다시 찾아 올 새 봄의 희망을 느끼고 싶다.

(2016.11.어느 날.)

이 진 숙 (Lee, Jin-sook)

•원광대학교 졸 •개인전 7회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출품 •현) 원묵회,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한국미협회원
•전주시 덕진구 장동 900-27 •전화 : 010-4605-9876 •E-mail : waltzz@nate.com



city / 97x130cm / 켄버스에 먹, 2016

도시(city)는 새로운 자연이다.

이미 도시는 스스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대한 생명체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한다. 그래서 도시는 우리에게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다.

이 철 량 (Lee, Cheol-ryang)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 1988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 1992 선묘와 표현-현대 한국회화전(호암갤러리)
• 2001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한.중.일 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 •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 2005 한.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 도시와 미술(서울시립미술관)
• 2011 한국화 재발견전(성남아트센타) • 2012 MANIF SEOUL(한가람미술관) • 2013 KIAF(Gallery MEE) • 서울 국제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 현)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35-1



적산(赤山) / 76×52cm / 장지+먹+아크릴, 2016

저기 저 붉은 빛으로 불타오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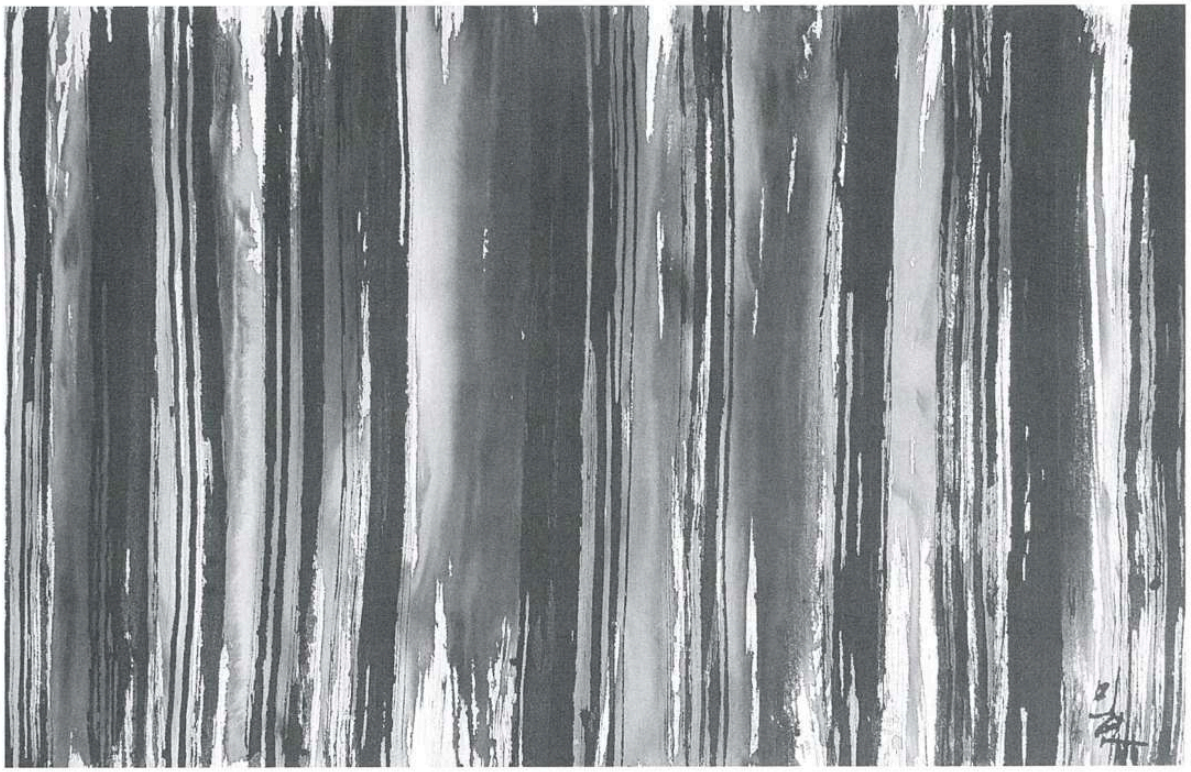
산등성이는...

점점 꺼져가는 마지막 청춘의

모습이겠는가?

이 환 배 (Lee, Whan-bae)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동악 71~94(문형궁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전북회화회전 •前)예원예술대, 전통문화고, 전주예술고 출강 •現)그린성 총원장
•주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현대4차@ 402-204 •전화: 010-3673-1562, 063)283-6512



소리의 묵상 / 110×70cm / 천에 수묵, 2016

요즘은 강태환 선생님의 '소래화' 음악을 들으며 작업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그 소리에 나의 몸과 마음이 흥을 내고 붓질도 소리에 신명을 낸다.

음악소리에 신명을 내고 이어서 붓질이 일어서는가 싶으면

갑자기 고요함이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 소리에 호흡을 가다듬고 바라보고 있으니 또, 무엇인가 가슴속에서 올라온다.

그것이 재미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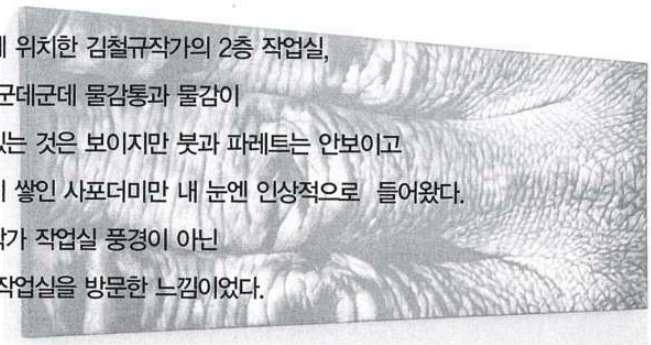
정 미 현 (Jeong, Mee-hyun)

•개인전 7회 •단체전 및 초대전 130여회 참여 •전북회화회, 건지전,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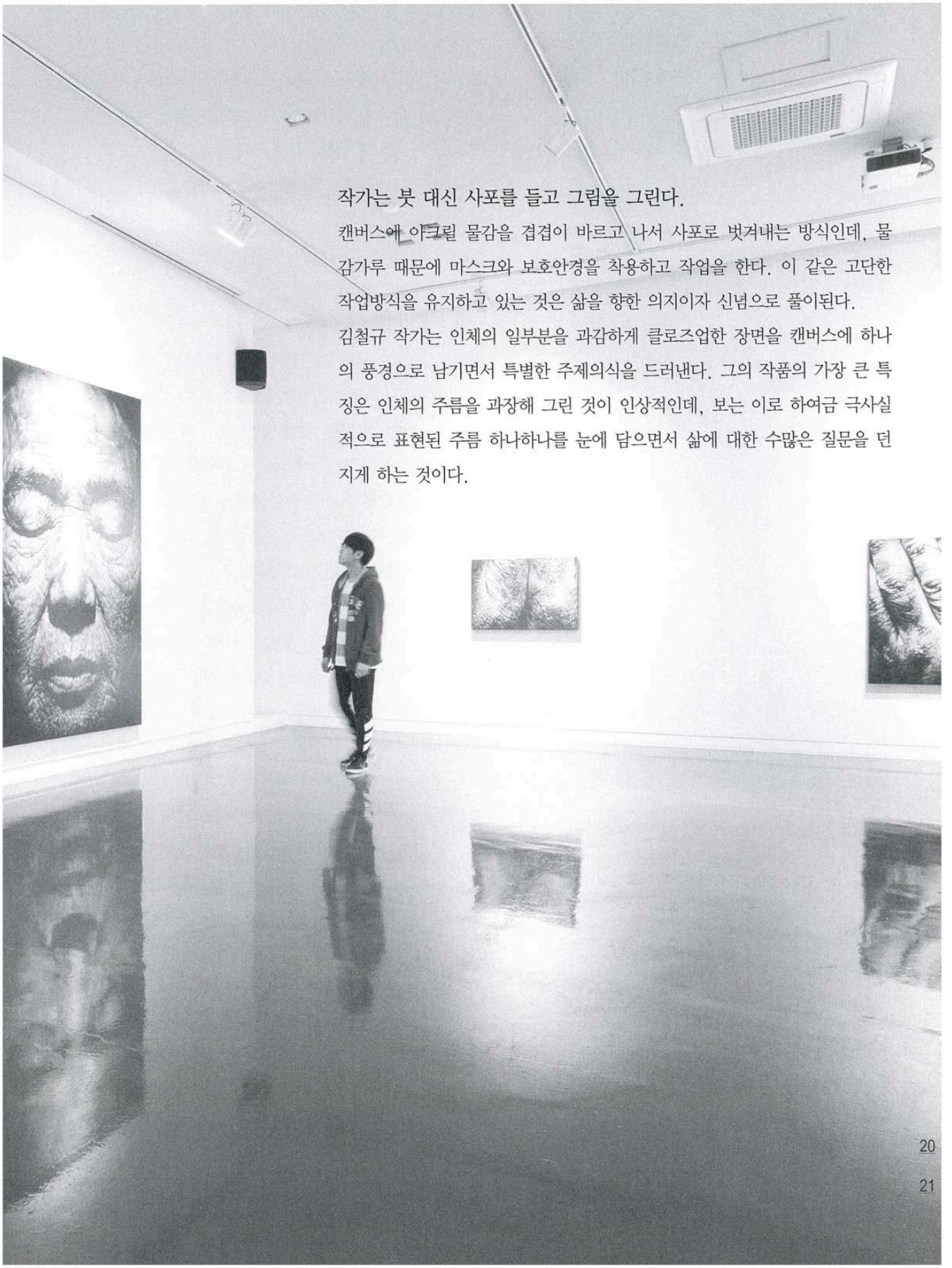
•현) 전주동중학교 재직 •주소 : 565-842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778번지 •전화 : 011-682-3560 •E-mail : hyun3560@hanmail.net

캔버스 위의 조각가 김철규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다.

글 **이환배** (전북회화회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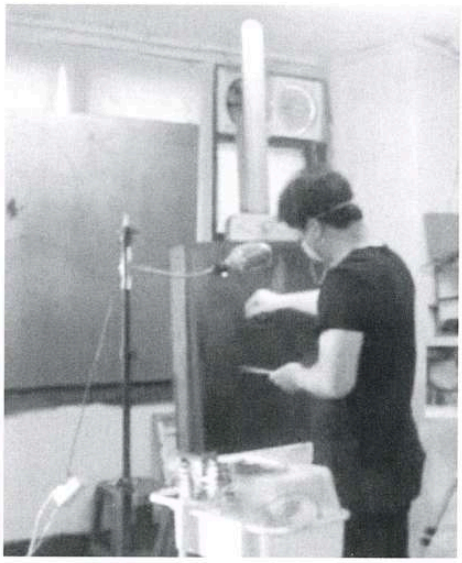
전주 객사인근에 위치한 김철규작가의 2층 작업실,
계단을 오르면 군데군데 물감통과 물감이
바닥에 뿌려져있는 것은 보이지만 붓과 파레트는 안보이고
캔버스와 수북히 쌓인 사포더미만 내 눈엔 인상적으로 들어왔다.
일상적인 회화작가 작업실 풍경이 아닌
마치 조각가의 작업실을 방문한 느낌이었다.



작가는 붓 대신 사포를 들고 그림을 그린다.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겹겹이 바르고 나서 사포로 벗겨내는 방식인데, 물감가루 때문에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 이 같은 고단한 작업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삶을 향한 의지이자 신념으로 풀이된다.

김철규 작가는 인체의 일부분을 과감하게 클로즈업한 장면을 캔버스에 하나의 풍경으로 남기면서 특별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그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체의 주름을 과장해 그린 것이 인상적인데, 보는 이로 하여금 극사실적으로 표현된 주름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면서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다.







방문자 : 우선 반갑습니다. 전주의 중심 객사 앞에 작업실이 있는데 작업실 월세가 비싸겠습니다.

작 가 : 하하 중심이죠. 동문거리에서 웨딩거리로 작업실을 옮겨온지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전라감영 복원 때문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야하나 적정도 되는데.....

금 작업실은 건물주의 배려로 다행히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 그렇죠. 대부분의 작가들의 항상 숙제같은것이죠. 저도 매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전을 하고 있던데요?

작 가 : 네. 11번째 개인전이 9.27일부터 10월15일까지 갤러리 누벨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 이번 개인전이 이전 개인전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작 가 : 음, 내용적인 측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크게 인물과 손의 형상안의 주름, 확장된 형태의 주름, 후면 조명작업을 이용한 주름을 강조한 작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방문자 : 그렇군요. 작품을 감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 : 사포로 작업을 하게 된 동기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작 가 : 우리의 삶의 과정은 비움과 채움의 연속적 과정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비움과 채움의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 일반적 회화작업의 반대 작업인 안료를 갈아내어 이미지를 채우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이러한 작업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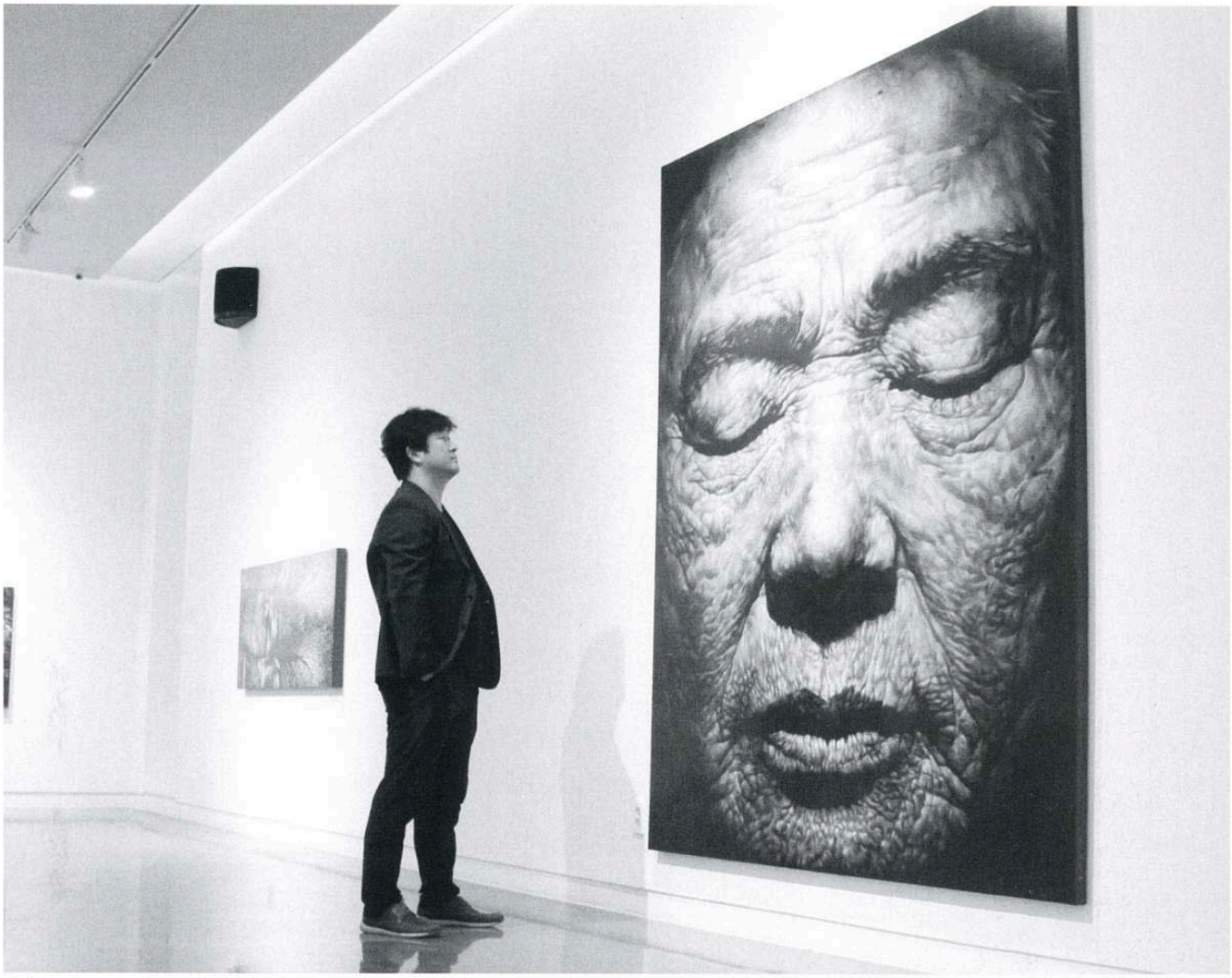
방문자 : 사포를 이용한 작업을 해온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 가 : 사포작업은 2006년도부터 해왔지만 현재 진행중인 '인체풍경' 시리즈 작업은 2008년 부터 계속해오고 있다.

방문자 : 현재 작업하고 있는 주름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시는지?

작 가 : 인간 또는 인체에 있어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통해 주름표현이 나오게 되었고, 주름을 통해 삶에 대한 과정과 반성, 죽음에 대한 인식 , 실존하는 인간다움과 더불어 인간의 숭고미를 추구하려 하였다.

방문자 : 그러면 이러한 주제와 방식의 작업을 언제까지 진행할 계획인가요?



작 가 : 우선 지금 하는 작업은 당분간 지속 될 거라고 봅니다. 인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계속된 숙제라 생각하고 좀 더 진솔하고 고되지만 저의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작업에 임할 계획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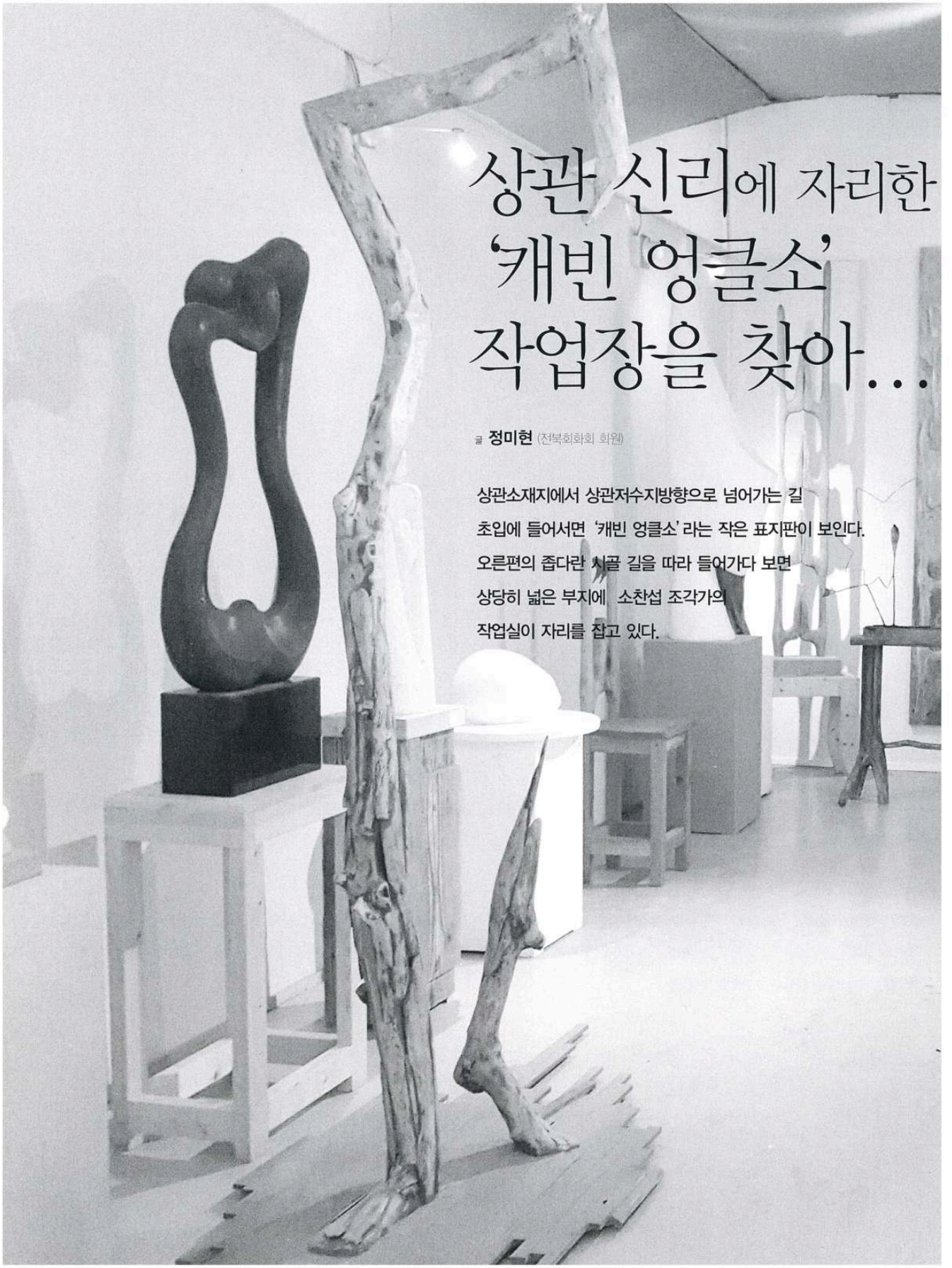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개개인의 삶의 흔적인 주름을 통해 답을 구하다.** 주름의 본질이 삶의 수고로움이듯 그의 작업과정 또한 그 수고로움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 **캔버스에 조각하듯 잔재를 비워가며 주름의 이미지를 채워가는 김철규작가의 작업을 마주하며 나또한 현재의 내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하루였다.**



김 철 규 작 가 는

군산대와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군산대 박사과정 중이다. 2004년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매년 작품전을 선보이고 있으며 다수의 기획전과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전북청년작가위상작가상, 전라북도미술대전 대상 · 우수상, 전국 온고을미술대전 최우수상, 21C새로운 도전-지명작가 공모전 우수상 등의 수상 경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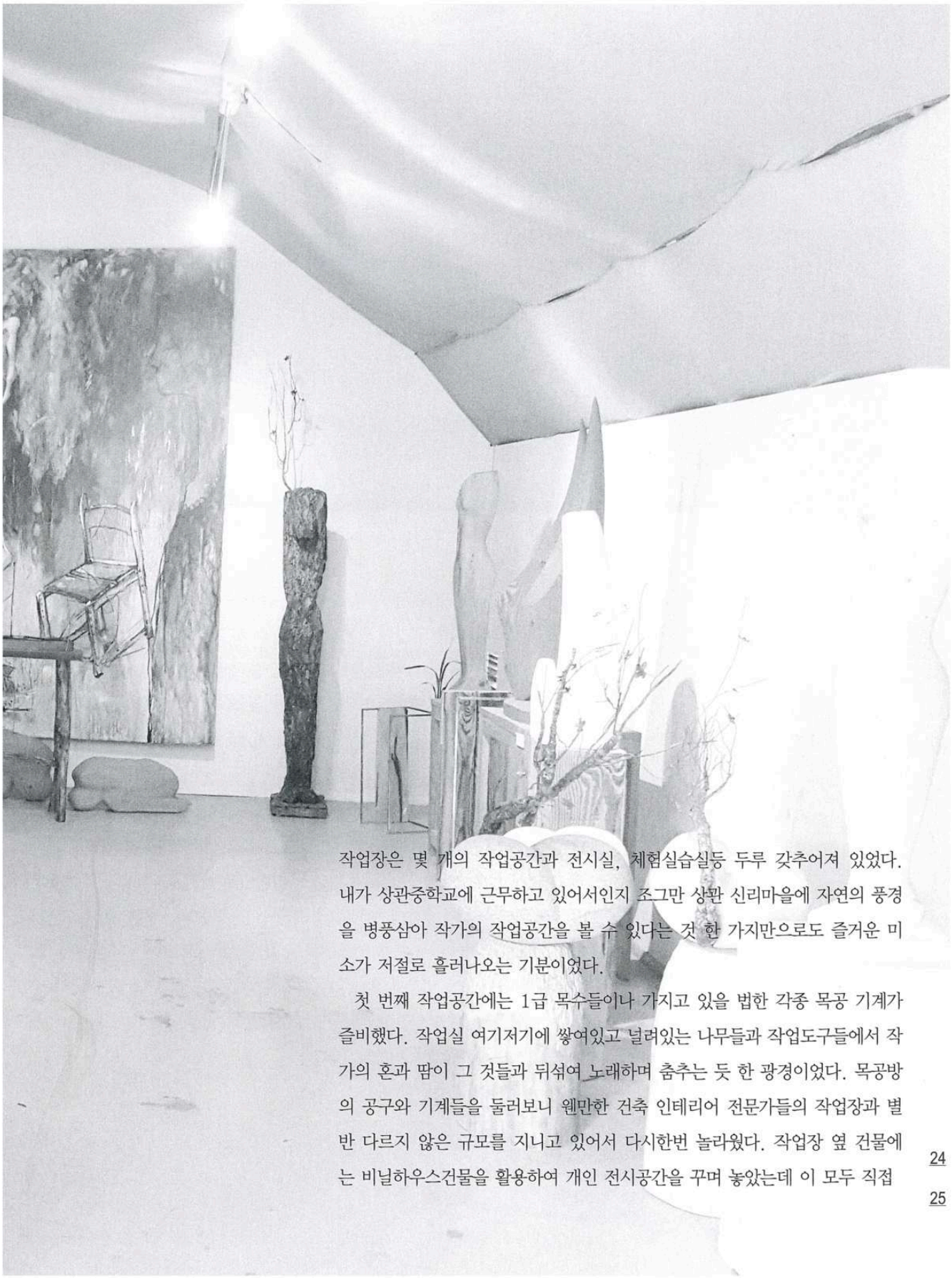
검색창 – 김철규 인체풍경 blog.naver.com/kck7699



상관 신리에 자리한 '캐빈 엉클소' 작업장을 찾아...

글 **정미현** (전북회화회 회원)

상관소재지에서 상관저수지방향으로 넘어가는 길
초입에 들어서면 '캐빈 엉클소' 라는 작은 표지판이 보인다.
오른편의 좁다란 시골 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넓은 부지에 소찬섭 조각가의
작업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작업장은 몇 개의 작업공간과 전시실, 체험실습실등 두루 갖추어져 있었다. 내가 상관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인지 조그만 상관 신리마을에 자연의 풍경을 병풍삼아 작가의 작업공간을 볼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즐거운 미소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기분이었다.

첫 번째 작업공간에는 1급 목수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각종 목공 기계가 즐비했다. 작업실 여기저기에 쌓여있고 널려있는 나무들과 작업도구들에서 작가의 혼과 땀이 그 것들과 뒤섞여 노래하며 춤추는 듯 한 광경이었다. 목공방의 공구와 기계들을 둘러보니 웬만한 건축 인테리어 전문가들의 작업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규모를 지니고 있어서 다시한번 놀라웠다. 작업장 옆 건물에는 비닐하우스건물을 활용하여 개인 전시공간을 꾸며 놓았는데 이 모두 직접



만들어낸 공간인 듯하였다. 갤러리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멋진 전시장이었다. 그 안쪽으로는 체험학습 공간이 준비되어있었고 조각과 목공, 도예 등 다양한 창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도구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작업실 안쪽으로는 아담한 쉼터가 소박하면서도 따듯한 햇볕이 드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공간속의 소품들을 보며 사람들과 함께 숨 쉬고 나누는 자리로 쓰여 지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전시공간과 작업실 밖에 즐비하게 놓여 져 있는 석조와 목조작품들을 보면서 그 많은 돌들과 나무들의 원형들이 떠올려졌다. 돌과 나무들을 자르고 갈고 정과 끌로 쪼개고 다듬어내는 일을 얼마나 수없이 반복하였을까? 작품 속에 배어있는 작가의 노고와 창작의 번뇌가 고스란이 전해져왔다. 오랜시간을 지내오면서 변함없이 작업에 몰입하고 정진하는 순간들이야 말로 또 다른 명상과 수련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부드러움과 수줍은 듯한 미소로 맞이하던 소작가의 모습을 떠올리며 작가로서의 삶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지난 11월에 교동 아트스튜디오에서 '낡은 잡기장의 독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아홉 번째 소찬섭 개인전을 가지게 되어 방문하였었다. 자연의 메시지와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들이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의 작품도록에 담겨있던 작업일기 한 부분을 담아 소찬섭작가의 작업세계에 대한 삶의 모습을 전하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그렇구나! 그러자! 바람쐬러가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뜬구름 같은 것들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한다.

녀석들은 이 땅에서 작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가난이 재산인 내게로 와 나를 빌어 독백의 서를 쓰려 한다.

가을도 이제 하루하루가 낙엽지듯 땅우에 덜어져 뒹글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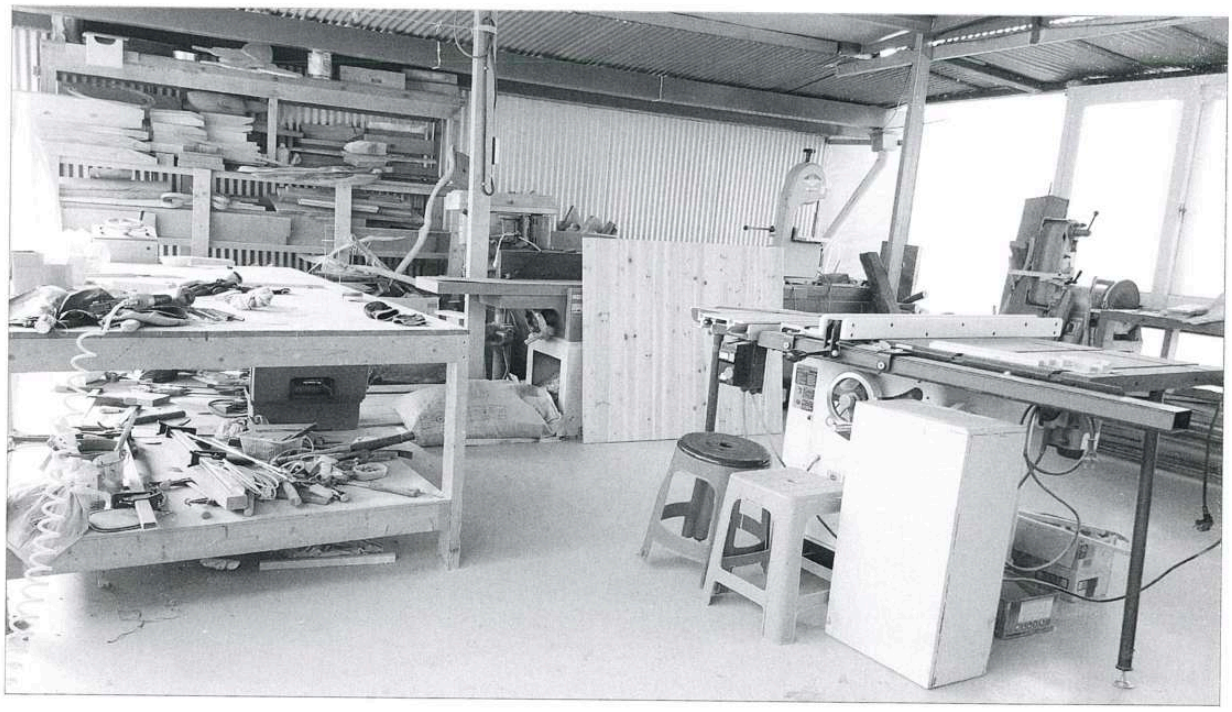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미숙한 잡기장의 넋두리가

나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넋의 출가를 도와야겠다.

백석의 시가 그러하듯이...

"



화가 변월룡과 어머니



어머니, 1985 / 캔버스에 유채 / 119×72cm

글 **이승훈** (군산대성중학교)

어머니의 모습이다.

화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나서야 어머니를 그렸다고 한다. 화가가 70이 되어서야 노모를 생각하며 그렸다고 하는 '어머니(1985, 캔버스에 유채, 119cm×72cm)'가 바로 이 그림이다. 러시아 세르게이 화실 정면에는 지금도 이 어머니 초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인물들의 초상화를 그렸음에도 그토록 아끼고 그리워했던 그 어머니상을 어머니 사후인 말년에 그려야만 했던 것일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한국 근대거장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백년의 신화'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러시아에서 활동한 변월룡전을 준비했었다. 이 그림은 그 때 우리나라에 선보인 그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화가이다. 렘브란트를 좋아하던 어린 변월룡은 러시아에서 유명한 화가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빤 봐를린'은 그의 이름의 러시아 발음이다.

러시아 레핀미술대학의 교수가 되어 정교수가 되기까지 24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의 나이 61세가 되어서였다. 승진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소수 민족의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교수가 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렘브란트의 '야경(387cm×502cm)'보다 큰 '우리 시대의 사람들(360cm×531cm)'을 레닌그라드 미술가 지역전람회에 출품하였던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에서 미술교육을 받고 화가이자 교육자로 살았으며 15개월 정도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 인사들과 교류를 했고 평양미술대학 학장과 고문 역할까지 맡기도 하였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 제2차 세계대전, 전체주의, 냉전, 개혁과 개방을 겪는 파란만장한 시대를 관통했고, 조국에는 일제의 식민, 전쟁과 냉전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에도 그의 이름은 남이나 북에서 조차 잊히고 말았다.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살았던 변월룡의 유언은, "내 묘비에 한글 이름을 새겨 달라"는 것이다. 끝까지 러시아 이름으로 개명하지 않고 '변월룡'을 고수했던 진정한 우리민족의 예술가!







변월룡 화가는 1916년 9월 29일 러시아 연해주 쉬코톱스키 구역의 한 유랑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생사를 모른 채 조부모와 어머니, 두 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와 장녀 그리고 차남은 모두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인 면을 돌보아 주셨던 할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항상 어려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강한 집념과 가족 모두의 도움으로 변월룡의 학업은 계속 이어져 1937년 스베르들롭스크의 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지만 얼마 안 되어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모조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사건이 터졌다.

그 결과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인근 우쉬토베 지역,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남부,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유배지인 버려진 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변월룡 가족도 강제 이주의 이산가족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변월룡은 고려인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가로 평가도 받고 명성도 누렸다. 이방인을 허락하지 않는 내 나라의 정체성,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였던 작가 변월용, 그는 금강산 소나무를 자신의 굴곡진 삶에 투영하여 유화와 동판화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유명한 인사들의 주문을 받아 초상화 그리기도 하였다.

그런 그가 37년간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시절 척박한 생활을 연명하며 가족을 건사하였던 어머니의 모습은 함부로 그릴 수 없었던가 보다. 그의 '어머니' 작품은 지난 시절의 암울함을 배경으로 흰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의 간결한 색채로 약간 구부정하게 서 계신 포근한 인상의 할머니 모습이다. 어머니 옆의 장독 같은 검붉은 어항에는 빨간 물고기가 노닐고 있다고 하나 자세하지는 않다. 얼굴의 주름과 슬며시 다문 입, 지그시 뜬 눈, 피부의 투명함 등은 세월의 중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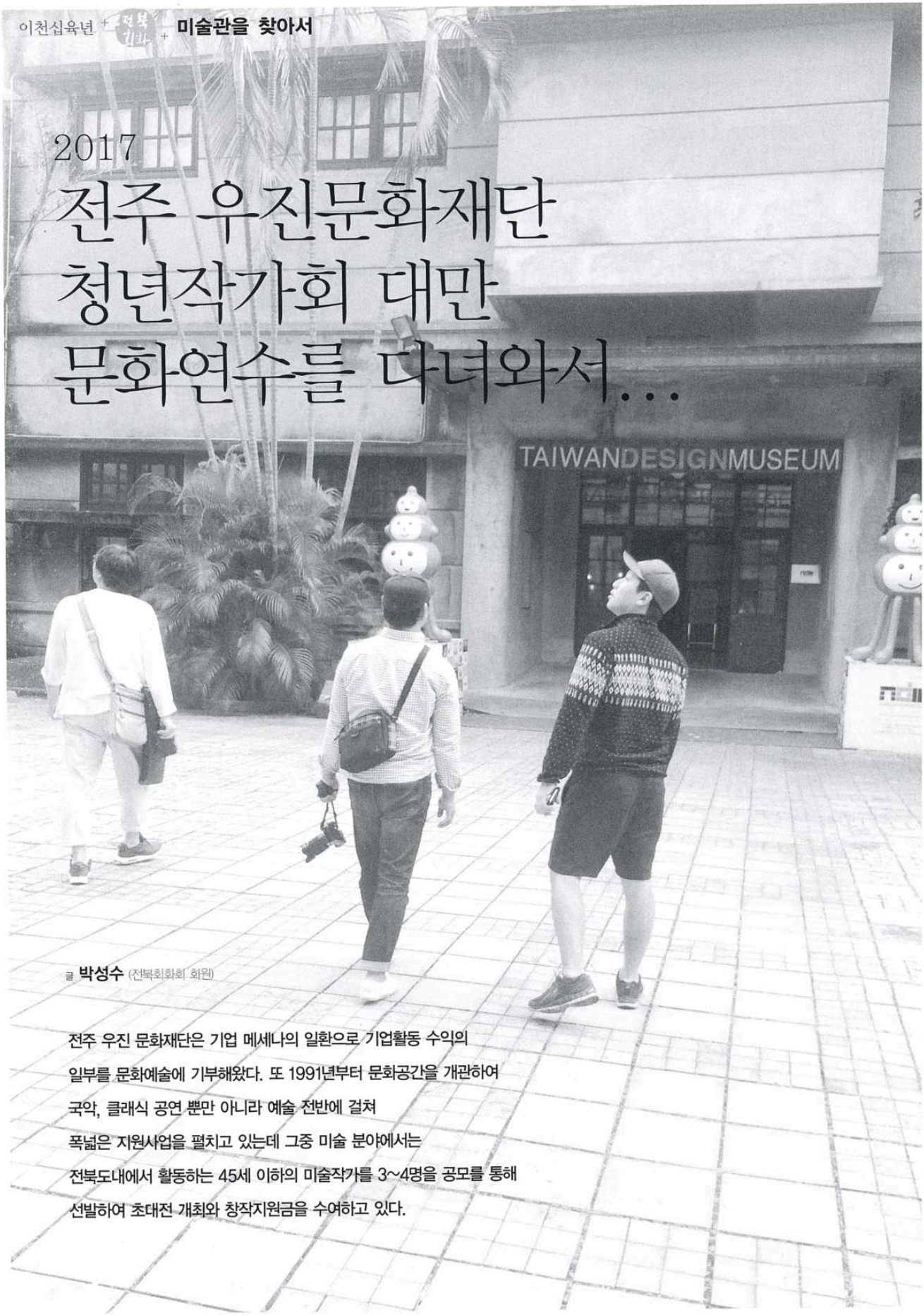
까지 느끼게 한다. 그리고 백발과 흰색의 저고리는 비장한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듯하다. 작가는 '어머니' 작품을 완성하고 쓰러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은 투병생활을 견디게 하였으며 유년의 할아버지가 존재하셨던 가족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다고 한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어 한번쯤은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에 대한 나의 역할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저자인 아놀드 J.

토인비가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지구에서 꼭 가져가야 할 제일의 문화는 한국의 효 문화"라고 말했듯이 효의 근본은 바로 어버이에게서 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법정 스님 또한 '새들이 떠난 숲은 적막하다'란 그의 글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다. "아이들은 채워 주어야 하는 텅 빈 물통이 아니라 밑거름이 될 하나의 씨앗, 한 개의 도토리이다. 어떤 식물학자도 그리고 정원사도 도토리에게 참나무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작은 씨앗이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서 수백 년을 살고 수백만 개의 도토리와 나뭇잎과 줄기를 만들어 내는 힘이 들어 있다고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씨앗이 되게 하는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가 되겠는가? 참교육의 주체가 되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도 후손들의 삶 속에 거룩한 씨앗을 발견했으면 한다.



2017

전주 우진문화재단 청년작가회 대만 문화연수를 다녀와서...

글 **박성수** (전북회화회 회원)

전주 우진 문화재단은 기업 메세나의 일환으로 기업활동 수익의 일부를 문화예술에 기부해왔다. 또 1991년부터 문화공간을 개관하여 국악, 클래식 공연 뿐만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미술 분야에서는 전북도내에서 활동하는 45세 이하의 미술작가를 3~4명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초대전 개최와 창작지원금을 수여하고 있다.





대만을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다

'청년작가회'는 바로 역대 수상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로 매년 우진문화재단의 협조 아래 정기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연수를 다녀오고 있다. 작가들의 식견을 넓히고자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등의 주요 문화시설과 미술관등을 견학하였고 올해는 대만을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다녀온 대만은 태평양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지각운동으로 큰 산과 언덕, 평평한 분지, 특유의 해안선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흡사 제주도와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 여러 유형의 자연기후를 볼 수 있어 한국과 비슷한 여러 계절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도착할 무렵에는 한 여름이 이제막 지나고 가을이 되는 시기여서 선선한 바람속에 기분좋은 탐방을 할 수 있었다.

11월 1일 우진문화공간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11시 30분 비행기로 대만의 타오위엔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향한 곳은 주명미술관(Juming Museum)이다. 대만의 유명한 예술 작가인 '주명'의 개인 미술관으로 1970년대 아시아 최고의 조각가 반열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태극권' 시리즈를 포함하여, 동양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많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세세한 기교를 절제하고 큰 면들로 이루어진 인체와 여러 군상들은 그림으로 비교해서 보면 서양의

입체파나 미니멀리즘 작가의 작품을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극도로 절제된 면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지만 중국인들이 운동 삼아하는 태극권의 운동감이 느껴졌다. 아시아를 넘어 외국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튿날 우리가 간곳은 대만에 오면 누구나 한번쯤 오게되는 유명한 국립 고궁박물관이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고궁박물관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손꼽힐 만큼 세계적인 소장품을 자랑한다. 중화 보물 중에서도 최고의 보물들이 모여 있어 진귀하고, 수량 역시 워낙 방대하여 3개월 단위로 1만여점을 돌아가며 전시해도 다 보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본래에는 1925년 중국 베이징 자금성에 있었으나 만주사면과 중일전쟁으로 문물의 위협을 당하자여러 지역에 분산 보관했던 문물을 1948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할 때 함께 옮겨졌다. 옮긴 문물은 거의가 보물급으로 60만건이 넘는 물건이 소장되어있다.

우리가 방문한날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별로 서예, 회화, 도자기, 문헌, 청동기시대 유물등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이어폰으로 들을수 있는 한국어로된 해설 가이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유물의 많은 양에도 놀랐지만 그 동안 매체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섬세하고 아름다운 각종 공예품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타이페이 현대 미술관

3일째 우리가 탐방한곳은 타이페이 현대 미술관이다. 고적 건축물을 현재의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곳으로 일제시기에는 초등학교로 쓰였으며 광복 후에는 타이페이 시정부 사무실로 쓰였던 곳이다. 1994년에 들어서 시정부가 신의구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술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 정식으로 타이페이 현대미술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각종 당대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1층에는 'Ronald Ventura' 작가의 Finding home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2층에는 스크레치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대만에서 주목받고 있는 Leigh Wen작가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었다. 특히 바람, 구름, 파도와 같은 자연현상을 스크레치 기법으로 대형화면에 옮긴 작품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4일째는 송산문화창의단지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1937년에 건립된 이곳은 대만 최초의 전문 담배공장으로 , 당시 공장의 형태를 대표적으로 볼수 잇는 곳이다. 2001년 타이페이 시정부에 의해 유적지로 지정되었으며 시정부는 이곳의 공간재활용을 위하여 여러 전시행사와 대만 창의 디자인센터, 유리 예술등을 결합시켰고 그결과 디자인과 아이디어 산업의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점심으로 맛있는 중국식 만두를 먹고 다음으로 간곳은 보장암국제예술촌이다. 2001년 대만의 첫 국제예술촌으로 계획된 이곳은, 예술가들뿐만아니라 이들을 포함하여 일반 사람들에게도 서로 모여 창작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곳은 각기 다른 형태의 예술활동을 홍보하고, 전문 예술가와 일반예술인들을 위한 전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마음 고곳에 세계 30여개국에서 온 예술가들이 묵으면서 창작활동과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날 대만에서의 주요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만은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의 한 나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닮은 부분이 많다. 중국의 문화권에 있으면서 근대를 거치며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였고 이후에는 자국의 노력에 의해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는 아시아에 몇 안되는 나라이다. 더불어 우리가 탐방한 곳 중에는 고건축물과 근대시설들을 활용하여 예술가들과 지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여 성공한 곳들이 많았다. 최근 들어 레진던시나 문화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는 전북도내의 상황에서 본받을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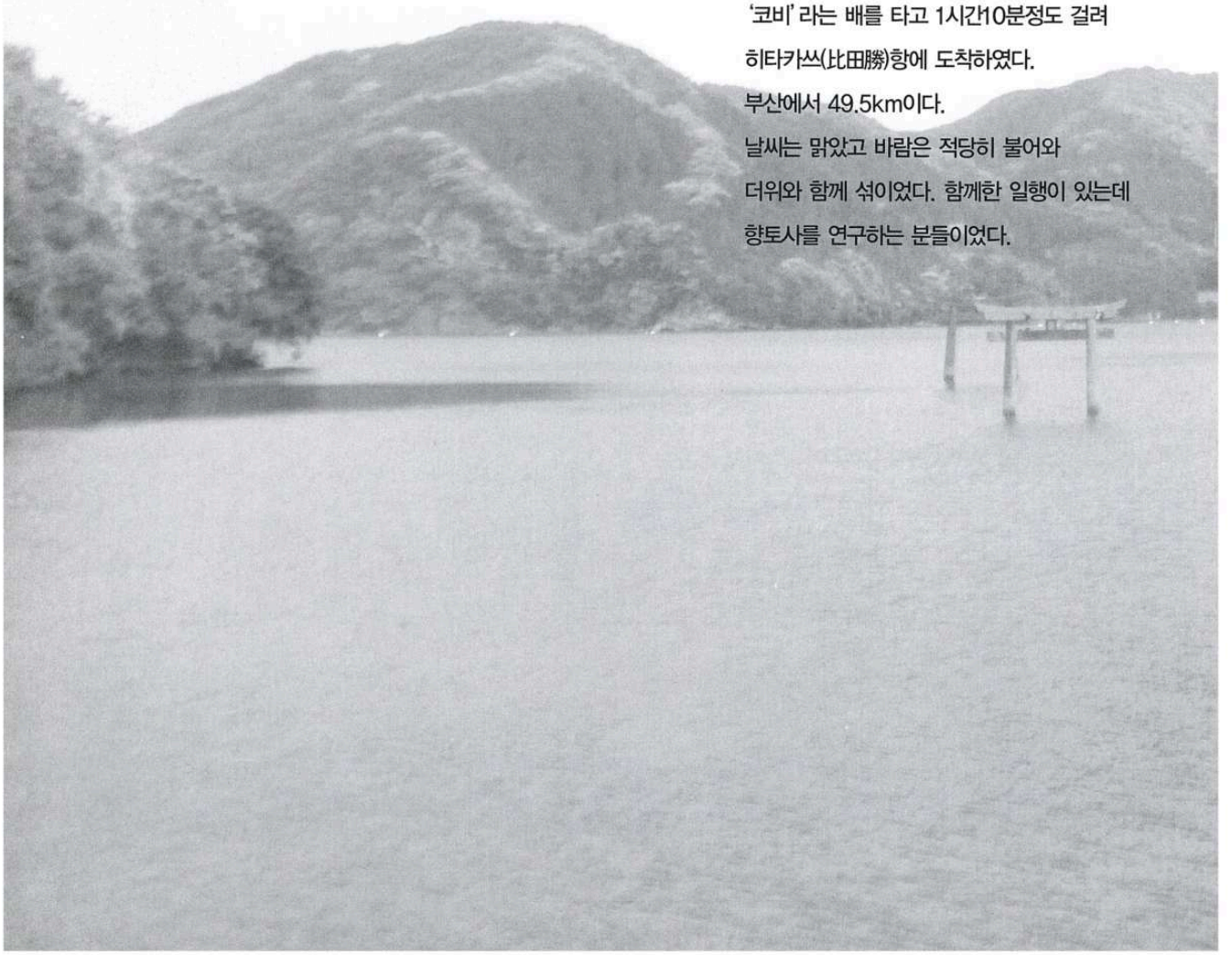




대마도를 다녀와서...

글 이승훈 (전북회화회 회원)

잃어버린 땅 대마도를 찾아 갈 계기가 있어서
주말을 이용하여 1박2일간 돌아보고 왔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쾌속정
'코비' 라는 배를 타고 1시간10분정도 걸려
히타카쓰(比田勝)항에 도착하였다.
부산에서 49.5km이다.
날씨는 맑았고 바람은 적당히 불어와
더위와 함께 섞이었다. 함께한 일행이 있는데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이었다.







1.

미우다 해수욕장

미우다 해수욕장 배에서 내리어 준비된 버스로 이동하게 되었다. 버스는 도노자키 해변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와 있었다. 이곳이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우리에게 강화 교섭을 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한 통한의 언덕이다.

러일전쟁과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는 생각에 은혜의 교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버스로 이동하여 미우다(三宇田)라는 일본 100선 해수욕장으로 왔다. 그다지 넓지 않다. 부안 의변산 해수욕장과 비슷 크기로 보인다. 다만 물은 맑고 모래가 고와 보인다. 가까이 아주 작은 섬이 떠있다.

한국전망대

한국전망대가 설치된 쓰시마 최북단 와니우라로 왔다. 와니우라는 악어포구라 하는 데 암초가 많고 그 모습이 악어이빨을 닮아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와니는 일본에 유학을 전해준 왕인박사의 일본어 발음이기도 하다. 전망대는 파고다 공원의 정자를 모델로 만들었다. 기와며 부속 재료를 한국에서 공수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바로 아래에는 일본 자위대가 있는 진영이 울창한 나무사이로 보인다. 부산에서 49.5km정도 이며 일본 후쿠오카까지는 137km로 한국에서 훨씬 가깝다. 광안대교 불빛도 보이고 우리나라 이동전화가 간혹 잡히기도 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도 가까워서 조선을 더 가까이 하고자 했던 섬이다. 대마도 사람들이 한국 령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이다. 역사를 잘 지키면

우리 것인데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다.

전망대 옆으로 역관사 순난비가 있다. 전망대 옆으로 조선 숙종 때 조선에서 대마도로 건너다가 폭풍을 맞아 죽음을 당한 108명의 역관사를 기리기 위한 비가 서있다. 그를 위로하는 데이지가원통사 고려종과 이예 공적비가 있음 하얗게 피어있었다. 내려오는 길에 어디서 많이 보아온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한국 정서가 있는 조선독이고 그 옆에는 일본의 항아리였다. 둘이 서로 돈독 하라는 건지 싸우다 보면 다 깨질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원통사 고려종과 이예 공적비가 있음

일본식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한 후에 길을 나섰다. 먼저 간곳은 원통사라는 절이다. 1408년에 세워진 사찰로 무로마치시대 대마도주 종정무의 집무실로 알려지고 있는 엔슈지(圓通寺)에는 2005년에 건립한 조선통신사이예공적비(朝鮮通信使李藝功績碑)가 서있다.사찰 정문 오른쪽에 고려종(高麗鐘)이 걸려 있어서



2.

1. 미우다 해수욕장

2. 한국전망대

3. 원통사 고려종과 이예 공적비가 있음

3.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충숙공 이예 선생의 공적비가 있는 곳이다.

원통사 정문에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조선 초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됐던 계해약조(癸亥約條, 1443년) 체결에 공헌하고, 1401년 정식 외교사절이 된 후 40여 차례에 걸쳐 일본을 오가며 667명의 조선인 귀환을 성사시키는 등 근대 이전 우리 외교사에서 대일외교를 주도한 전문 외교관이었다. 원통사는 조동종계통 절로 군산의 동국사와 같은 종이다. 동국사는 지금 조계종 금산사의 말사이나 일본침략기에 조동종이었다.



4.

이즈하라 시내, 수선사 가는 길

만관교(만제키바시)에 다다랐다. 비교적 큰 다리이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만제키세토라는 운하를 가로 지르는 다리를 말한다. 운하는 아소만과 미우라만을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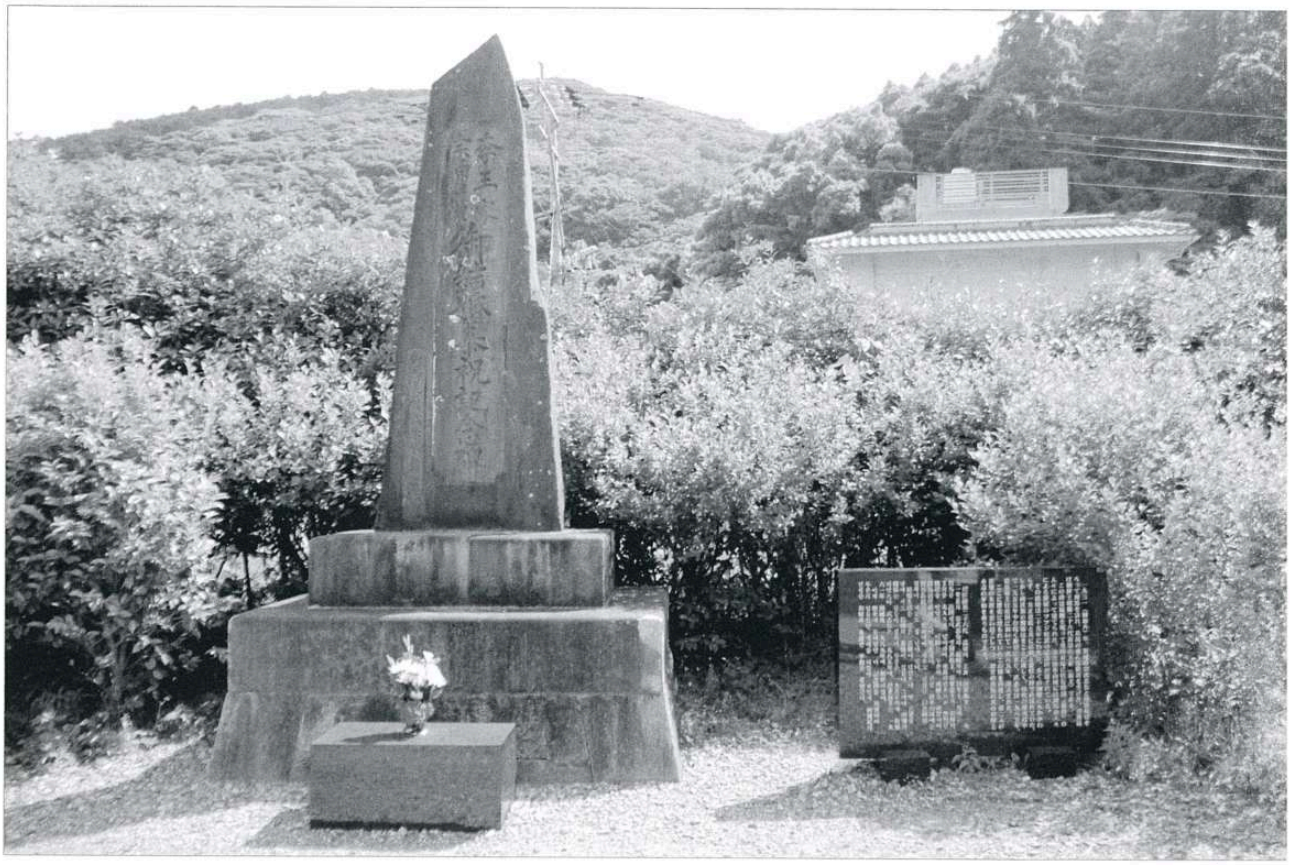
1900년도 일본해군이 함대의 통로로써 인공적으로 판 해협에 다리를 세웠다. 대선월(오후나고시)은 조선에서 오보라구시포라고 불렀다고 한다. 1672년 대마도주 종의진이 대운하를 건설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수로폭이 50m, 길이 는 240m라고 한다. 깊이가 낮아서 군함이 다닐 수 없어서 다시 판 곳이 만제키바시(만관교)이다. 이곳은 러시아와 전쟁하여 발틱 함대를 무찔러 승리하여서 유명하여졌다. 러일전쟁 당시 1905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포츠머스에서 중재하였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이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미국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5.



최익현 순국비 옆에서

면암 최익현의 추모비가 안치된 수선사라는 작은 절에 왔다. 면암은 "내목은 자를 수 있어도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고 도끼를 들고 상소를 올리며 단발령에 반대했었으며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일으켜 항거



6.

4. 이즈하라 시내, 수선사 가는 길

5. 최익현 순국비 옆에서

6. 덕혜옹주 결혼 봉축비

7. 금석성 아쿠라문

하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1906년 유배되었다. 면암은 "남의 땅에서 난 곡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시고 가져간 식량이 떨어지자 굶어서 요절하였다. 그때 면암의 시신이 거둔 곳이 백제의 '법묘'가 세웠다는 수선사이다. 이 사찰은 백제 귀족출신 법묘 비구니스님이 창건하고 현판 글씨는 조선 말 김학진 판서의 친필로 전해진다. 본당에는 통일 신라 금동불상이 안치 되었다고 하는데 보여주지 않는다.

덕혜옹주 결혼 봉축비

덕혜옹주 결혼 봉축비에 도착하였다. 이즈하라 시청 길 건너에 금석성이 있고 그 안에 봉축비가 서있다. 금석성은 16세기 소(宗)가문이 거주한 성이다. 덕혜옹주가 결혼한 남편이 대마도주인 소가문의 후예

7.





8.

8. 조선국통신사비

9. 팔번궁 신사

10. 대선월과 다리

9.



소 다케유키가 있었기에 이곳에 비가 서있는 것이다. 비석에는 '이왕가 종백작가 어결혼봉축기념비'(李王家 宗伯爵家 御結婚奉祝記念碑)가 적혀 있다. 1953년 두 사람의 이혼으로 없어졌다가 2001년 11월에 복원된 것이다.

덕혜옹주 결혼 봉축비를 본 사람이면 덕혜옹주가 비운의 삶을 살다간 조선의 마지막 옹주라며 가슴 아파 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 덕혜옹주의 삶보다 더욱 처절하게 인생을 마감하였을 것이다. 그때 온 나라가 기구한 삶을 살았으니 더 말할 것이 없다. 금석성은 이국적이어서 여기에 온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는다. 이 성은 1669년 소시자네가 건립한 성으로 옛 대마도 건축기술을 엿볼 수 있다. 입구의 아쿠라문(櫓門)은 대마도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답다.

금석성 아쿠라문

금석성을 돌아 나오면 대마도역사민속자료관에 이른다. 고대의 토기로부터 11세기 고려판 대반야경(초조대장경), 12세기 고려청자, 소오씨가문의 '宗家文庫史料'는 가마쿠라 시대로부터 에도 시대까지 대마도를 통치해온 소(宗)가문의 500년의 기록이라고 한다. 조선통신사행렬도(朝鮮通信使 行列圖), 초량왜관도(草梁倭館圖) 등 유물과 쓰시마야마네꼬(산고양이), 쓰시마사슴, 물수리 등 천연기념물이 박제된 채 보관되어 있고, 대마도의 포경어업(고래잡이)의 기록이 고스란히 그림으로 제작되어 전시되고 있어 옛 대마도인들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다.

조선국통신사비

박물관 밖에는 조선국통신사비가 서있다. 이 비석은 나무 그늘 밑에 서있으면서 한국에서 찾아온 여행객을 맞이하고 유쾌한 사이가 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



10.

마을 돌담을 걸어서 돌아가면 신사가 나온다. 마리아 위령비가 있는 하치만구(팔번궁)신사에 왔다. 입구에 신사로 들어가는 도리이가 있다. 그 바로 앞에는 '고려 개' 라는 고마이누가 양쪽으로 있다. 좀 더 발길을 옮기면 한국식 기와집이 나온다. 이것이 하치만구신사이다. 이곳에서는 참배하지 말라고 한다. 일본 역사왜곡의 대표적인 임나일본부설에서 나오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신공황후를 말하는 것인데 임신한 채로 출병하여 신라를 정벌하고 삼한에 임나일본부를 건설하였다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팔번궁 신사

팔번궁 신사 본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청색 마상(馬像)이 있다. 이 말을 쓰다듬으며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래 쓰다듬으면서 우리역사나 왜곡하지 말라고 빌어 봄직하다.

입구에서 왼쪽에는 이마미야 신사가 있다. 일명 마리아신사라고 한다. 19대 대마도주의 부인 고니카 마리아와 그 아들 소 요시나리를 모신 곳이다.

마리아의 유키나가 가족은 모두 카톨릭 신자. 정략적 결혼을 한 마리아의 남편(쇼 요시토시)은 마리아의 아버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병하여 평양까지 침공하였으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권력싸움에 패하여 참수형을 당함. 권력싸움에 희생양으로 결국 마리아는 남편과 이혼하고 독실한 카톨릭 신앙생활을팔번궁 신사 하다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이 신사에 모셔 천신신사에 합사되었다고 한다. 이를 위로하여 세운 신사이다.

시간이 촉박하여 풍랑으로 표류한 조선인 어부가 머물던 집단수용소 '표민옥적(瓢民屋跡)' 과 춘향전(春香傳)을 일본어로 최초로 번역한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기념관' 등은 둘러보지 못하였다.



11.

대선월과 다리

대선월과 소선월은 운하이다. 배를 옮겨 넘기어 주어 반대쪽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데 작은 배를 넘겨주는 곳은 소선월이고 큰 배를 넘겨주는 곳은 대선월이라고 한다. 대선월은 운하가 되었고, 그 위에 대선월교(오후나코시다리)가 놓여졌다.

소선월은 동서폭 147m로 대마도 최저최단 협곡이다. 이곳은 이종무 장군의 전승지이다. 1419년 6월 29일 대마도 제8대 도주인 소 사다모리가 이종무 장군에게 항복한 곳이다.

대선월 초기 역사 있는 곳에서 민박을 하였는데 조용하고 깨끗하였다.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 어선만이 밤에 바닷가에 즐비하였다. 밤에는 그 흔한 텔레비전이 없고 유흥업소도 없었다. 다만 밤이 되자 창밖에 보름달이 떠오르고 검은 산 그림자만 강 같은 바닷물에 떠 있었다. 물은 점점 고요해져서 수면이 비단처럼 보였다.

낮엔 가는 곳마다 까마귀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언제나 공중에 날고 소리를 질러 댔다. 까마귀는 덕혜옹주의 그 아픈 절규가 원혼이 되어 떠다닌 듯하였다. 조선왕조 마지막 핏줄인 고종황제의 막내딸이 일본에 압송 되어 일본인과 강제 결혼 후에 나중에 파혼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약해져서 해방 37년이 지난 후에 조국에 병약한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에보시타게 전망대에서 본 아소만

다음날 일행은 출발하여 에보시타게 전망대로 갔다. 에보시타게는 일종의 일본 모자인데 그 모습을 닮은 것이다. 대마도에서 유일하게 한 바퀴 돌아가며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몇몇의 산과 아소만의 바다위에 떠 있는 듯 작은 섬들은 육지의 침강에 의해 생성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이룬다. 그 굴곡이 대마도의 백미이다. 수많은 무인도와 휘어진 해안과 잔잔한 수면에 비친 섬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한려수도를 연상케 한다. 날씨가 좋을 때에는 전망대에서 대한해협을 너머로 우리나라 산들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오늘 먼 곳은 그저 뿌옇게 보인다. 이 산 바로 아래에는 와타즈미 신사가 자리 잡고 있다.

와타즈미 신사는 아소만 입구에 있다. 신사 건물 옆으로 소나무가 뿌리를 용처럼 길게 드러내고 있었다. 어떤 이가 그 위에 설려고 하니 관리인이 그 뿌리 위를 못 올라가게 제지한다. 신성하게 모신다고 한다. 바다의 대모신(大母神)에 해당되는 신사로서, 본전 앞 갯벌에는 이쿠와라(磐座 ; 신이 거처하는 장소 또는 바위)가 있고, 신사 뒤편에는 도요타마의 문묘가 자리하고 있다. 이와쿠라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인 갯벌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도요타마가 출산 후 아들을 갯벌에 놓아두고 해저 용궁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다섯 개 도리이(鳥井) 중 바다 위에 두개가 있는데, 만조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뀌어 보인다고 한다. 저 도리이를 일직선으로 해서 연결하면 우리나라 김수로 왕릉을 향해 있기에 우리나라 신라의 정신을 갖고자 하였다는 설도 있다.

대마도(對馬島, 쓰시마)는 제주도 면적의 절반이 안되고 89%가 산악이다. 깨끗한 환경으로 한국에서 가까운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주요산업은 삼나무와



12.

11. 에보시타게 전망대에서 본 아소만

12. 와타즈미 신사 소나무 뿌리

13. 와타즈미 신사

13.



편백나무, 밤나무 등 임업과 오징어 등 어업이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길은 좁고 굴곡이 많아 차의 속도는 40~50km 이내로 다닌다. 인구는 약 3만3000명정도로 거의 이즈하라 부근에 모여 산다. 한국관광객이 주로 다녀가고 일본 본토사람의 여행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본으로 보면 여기는 오지 중 오지에 속한다.

대마도의 어원(語原)은 원래 예부터 한국에 소속된 땅으로 조선시대 중기까지 경상도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마도의 영주는 조선의 벼슬을 받았다. 그 증거가 있는데도 일본은 숨기려고만 한다.

대마도라 부르는 설에 대해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지만 주된 세 가지 유래로, 중국의 역사서인 위지왜인전(魏志倭人?)에 진도(津島: 일어로 쯔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한 유래와 삼한인(옛 한민족)들이 두 개의 섬이라 하여 '두시마' 라고 불렀다는 설, 이 섬이 마치 두 마리 말이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라 해서 대마(對馬) 즉 쓰시마라고 불렀다는 것이 어원이라는 세 가지 설이 있다.

대마도는 한일관계에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의 창구로서 정거장 역할을 한 곳 이였다. 대마도 땅은 1419년 이종무 장군이 정벌하여 대마도주에게 항복을 받은 곳, 왜구의 조선침략 근거지, 조선의 민간외교관 안용복이 감금당했던 곳, 순창출신이며 을사조약을 반대한 유학자이며 의병장인 면암 최익현 선생이 끌려가서 단식분사한 곳, 박제상 비석과 조선역관사 비석, 학봉 김성일 시비가 있는 곳, 임진왜란 전까지 친조선 이었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집권 후 완전히 친막부로 기울어진 곳이다. 매년 8월 첫째 토요일과 일요일 아리랑축제와 조선통신사 행렬이 이즈하라 시내에서 열렸었다. 2013년 대마도에서 불상 도난사건이 일어난 후에 2년간 중단하다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름이 아리랑 마쓰리가 아닌 미나토 마쓰리로 바뀌어 진행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성명에서 대마도(쓰시마)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으며 일본의 항의를 받고 이승만은 1948년 9월 대마도 속령(屬領)을 발표했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4월 27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했었다. 1950년 6.25 전쟁 중이라서 더 이상



힘을 쓸 없게 되어가고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2013년 의정부시의회 등 우리 측에서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정부차원의 반환 촉구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있자 일본의 한 언론에서 쓰시마 섬을 넘보려는 기사를 썼고 일본 우익신문 산케이 신문에서는 "쓰시마가 위험하다"라는 쓰시마 위기론을 기사로 써 넣었다.

앞으로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튼튼한 조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만 같다. 조국을 져버린 사람도 있지만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토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미래 주인공 청소년 교육에 역량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실정을 교과서에 기록하여 알리고 바른 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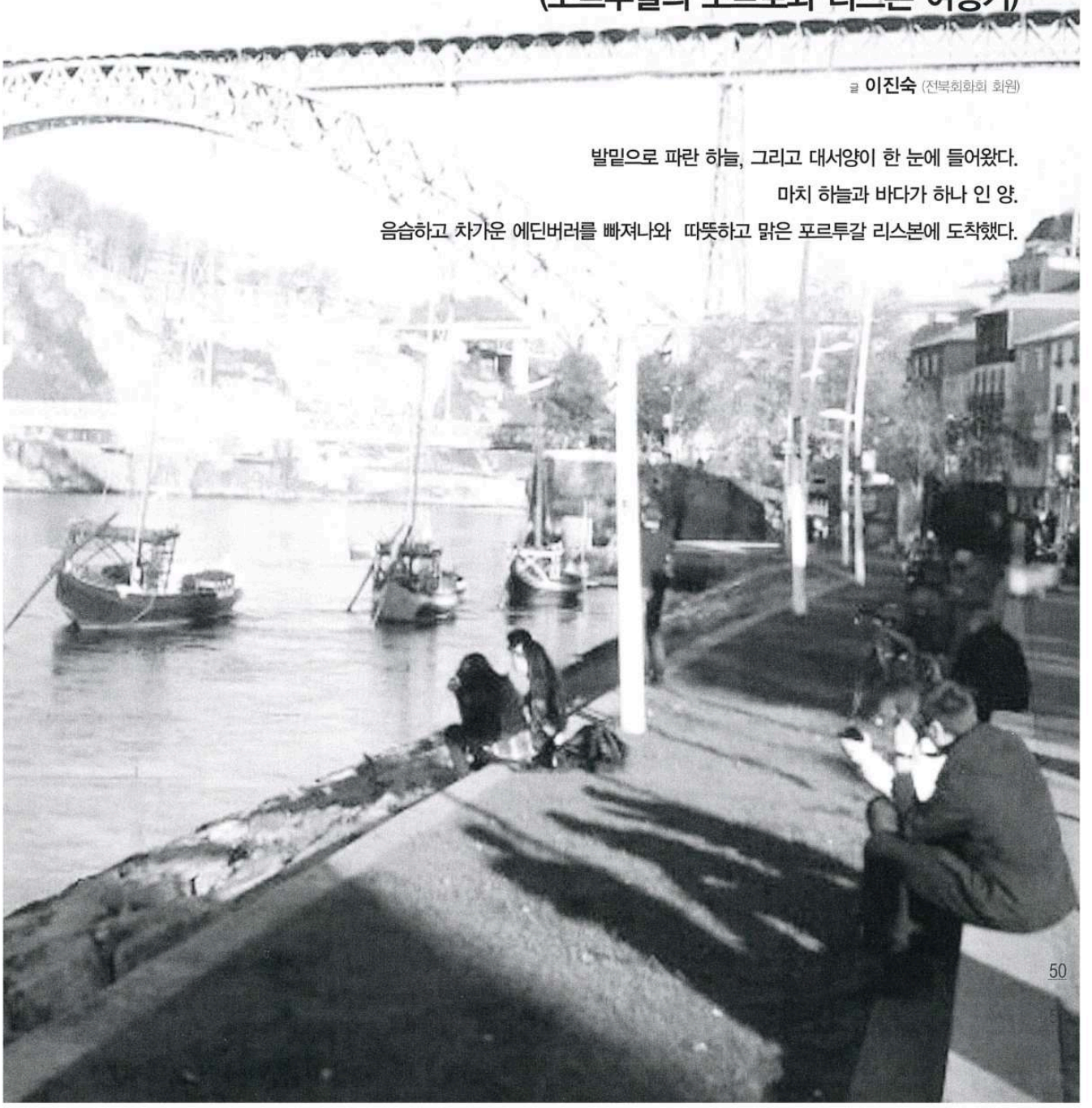


에그 타르트와 초콜릿무스

(포르투갈의 포르토와 리스본 여행기)

글 **이진숙** (전북회화회 회원)

발밑으로 파란 하늘, 그리고 대서양이 한 눈에 들어왔다.
마치 하늘과 바다가 하나 인 양.
음습하고 차가운 에딘버러를 빠져나와 따뜻하고 맑은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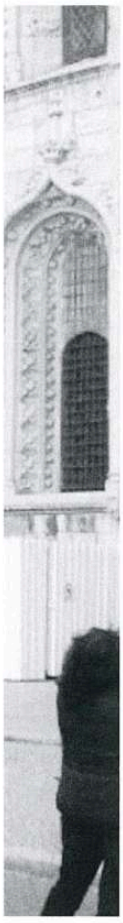
마음이 상쾌하니 덩달아 몸도 가벼워짐을 느꼈다.

입국심사대를 빠져 나올 때의 불편한 심기를 뺀다면 모든 것에 만족했다. 이 나라도 역시 EU 국가이기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몫이었다. 이런 불편함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두 털어 버렸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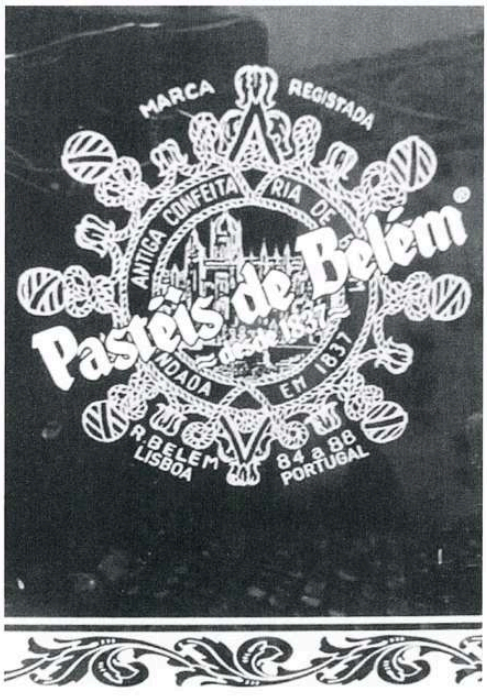
렌트한 자동차를 타고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니 조금 전의 불쾌했던 감정은 어느 덧 사라졌다. 비가 내렸다가 갠 듯 바로 눈앞에 커다란 무지개가 줄곧 우리를 따라오면서 환영 해주는 것 같았다. 세 시간쯤 달려 드디어 처음 목적지인 포르토에 도착했다. 이곳은 가고 싶은 곳을 두 발로 갈 수가 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었다.

대서양으로 흐르는 도우로 강 하구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 강을 가로지르는 '돔 루이스 I 세' 철교가 172m의 길이에 아치형으로 세워져 주변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프랑스 화가인 '모리스 위트릴로'가 불우한 시절을 지나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그렸던 파리의 어느 빈민가 골목을 그린 풍경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강변 언덕에 끝도 없이 펼쳐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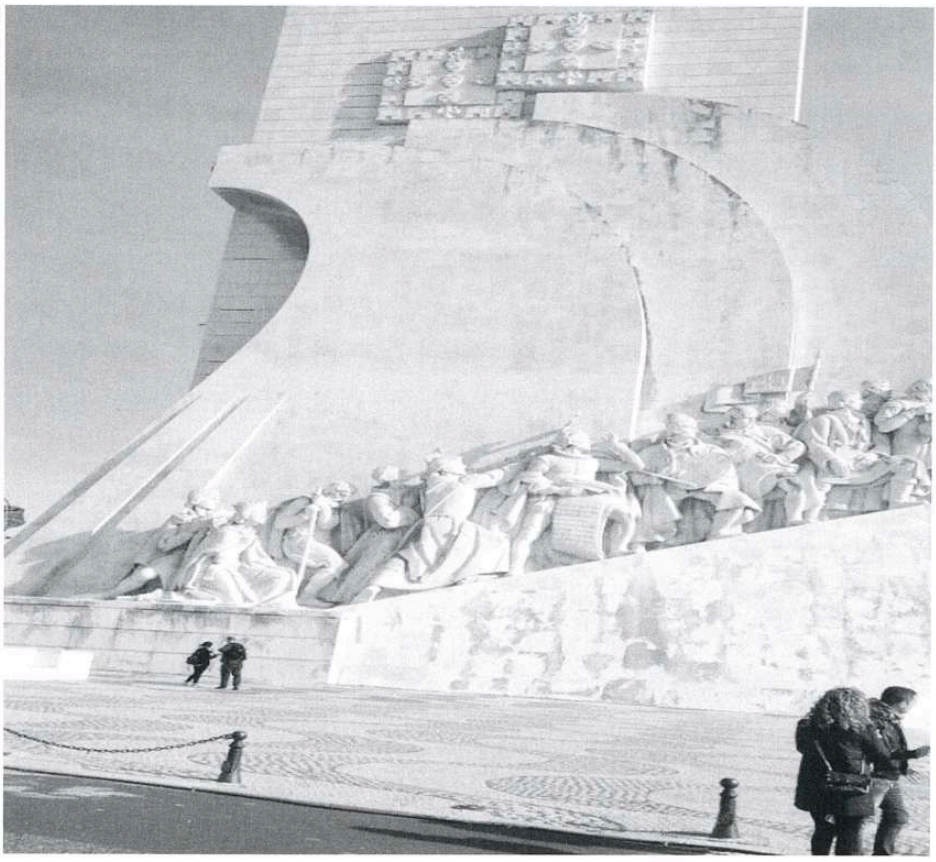
숙소 주인이 알려준 음식점을 찾아서 오르고 또 오르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길을 올라가니 허름한 음식점이 나왔다. 그야말로 동네 음식점이었다. 우리 같은 동양인을 처음 보는 듯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아직은 저녁식사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술을 파는 시간이란 말에 시계를 보니 7시였다.
그들의 저녁식사시간은 8시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우선 와인을 시켰다. 물론 동네 음식점이니 영어로 된 메뉴판이 있을 리 만무했다. 냉장고에 가서 손짓을 하며 주문한 화이트 와인을 한 잔 했다. 이곳 포르토는 와인 생산지로 유명하단다. 특히 디저트 와인으로 달짝지근한 것이 나처럼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도 유혹의 손을 내민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손을 잡은 나는 한잔 마신 술로 그만 얼굴을 홍당무가 되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식료품가게의 쇼윈도를 보니 놀랍게도 돼지머리 돼지 귀 등, 우리나라에서나 봄직한 재료들이 걸려 있었다. 이곳 음식점의 대표 메뉴도 밥이 빠진 돼지국밥처럼 생긴 음식이었다. 마침 그곳 손님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친절한 현지 청년의 도움으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었다. 먹는 내내 앞치마를 두른 안주인이 계속 우리에게 맛이 어떠냐고 묻는 것 같아, 무조건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들며 '따봉'이라고 하니 무척 기분 좋아했다. 후식으로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초콜릿 무스와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고 기분 좋게 나왔다.
평범한 영어 선생님이었던 영국인 '조엔K롤랭'이 쓴 '헤리 포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그녀는 물론 돈 방석에 앉았지만 또 하나 유명해진 책방이 있었다. 그 이름은 '자유의 광장' 부근에 있는 '렐루 서점'. 번화가도 아닌 곳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는데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유명한 관광의 명소가 되었다. 물론 내부도 여느 서점과는 달리 고색창연한 나선형 계단이 압권이었고. 관광객들로 인해 발 디딜 틈마저 없었다.
포르토 시내를 걷는 내내 건물 외벽에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타일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즐레주'라는 일명 푸른색 타일 장식이 많았다. 특히 포르토 시내에 있는 아주 작은







역인 '상벤투 역'은 벽장식이 온통 '아즐레주'로 되어 있어 보는 이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다시 리스본으로 돌아오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렸다. 여행 내내 여러 차례 고속도로를 달리며 휴게소와 주유소에 들렸었다. 우리나라에도 self주유소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 친절한 주인이 주유하는 방법을 알려 주거나 직접 주유 해주는 곳도 많은데, 이곳은 그야말로 진정한 self주유소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곳에 비하면 백화점 수준이다.
리스본에 도착하여 숙소를 찾으니 6층이란다. '아이쿠! 큰일 났군.' 좁고 가파른 계단을 헉헉거리며 올라가니 다행히 숙소가 마음에 들고 창밖에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다.
이곳도 소매치기가 많다고 특별히 조심하라며 Day ticket을 판매하는 주인의 친절한 경고를 들으며 이제는 여행 막바지이니 돈도 별로 남아 있지 않아 조심할 것도 없다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리스본도 '테주 강'의 끝 쪽에 자리 잡고 바로 강물이 대서양과 합쳐지는 곳이기에 밀물과 썰물을 볼 수 있단다.
유럽은 도시마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트램'을 운행하는 곳이 많았다. 특히 리스본은 내부가 목조로 되어있는 아주 오래된 트램도 여전히 운행 중이었다. 그리고 Day ticket이라는 하루를 쓸 수 있는 승차권을 구입하면 버스, 트램, 또는 지하철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참 편리했다.

한 때 세계를 호령했던 포르투갈

그러나 지금은 유럽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때의 영광을 보여 주듯이 바닷가에는 마치 바벨탑을 연상하게 하는 거대한 탑이 멀리 대서양을 향해 서 있다. 해양 왕 '엔리케'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세계정복을 꿈꾸듯이 바닥에는 세계지도가 새겨져있다.

'발렘 지구'에 있는 '제레니모스 수도원'에 가기 위해 트램을 탔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젊은 관광객들의 고개가 일제히 오른편으로 쏠리는 것을 보았다. 파랑색 어닝(햇볕가리개)이 있는 오래된 가게였다. 나중에 들으니 역사가 무려 170여년이나 된 제과점으로 에그 타르트가 가장 유명하다고 했다. 우리도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전에 미리 가서 맛을 보자며 수도원에 가기 전에 가게로 들어가 에그 타르트 먹었다. 역시 입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다. 수도원을 구경하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바스코 다가마'의 무덤도 보고 나오니 에그 타르트 가게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다란 줄을 보며 입가에 절로 미소가 그어졌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발렘 탑'에 올랐다.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탑은, 1층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19세기 초까지 사용하였다고 한다. 죄수들이 있는 1층은 밀물 때에는 물이 턱까지 올라 자연스럽게(?) 물고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하니, 왕권시대나 독재시대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뜻이 맞지 않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처참하기 까지 했다. 1층에서 물고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2·3층은 귀족들이 살고 있었다니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여행의 마지막 밤을 리스본의 야경을 보는 것으로 정했다.

좁은 골목과 가파른 언덕을 숨이 턱에 차게 올라 간 곳은 리스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상 조르제성'이었다. 그곳에서 내려 다 본 리스본의 야경은 황홀했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그곳을 항해하는 배들이 유유히 떠다니고 있다. 황혼녘의 바다는 황금빛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길다는 '4.25다리', 또 다리 맨 끝에는 그간의 여행과 앞으로의 일들을 축복이라도 하려는 듯 양팔 벌려 서 있는 '예수 상'의 모습이 어렴풋하게나마 눈에 들어왔다.

늦은 밤 까지 짐을 챙겼다. 밤은 깊어지는 데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아름다운 포르토의 철교와, 강변언덕에 옹기종기 모여 있던 아주 작은 집들이 다가왔다. 그리고 입에서 살살 녹는 듯 했던 초콜릿 무스, 달콤한 맛이 일품인 에그 타르트, 코끝에 진한 향기를 남겼던 에스프레소 커피가 혀끝을 간지럽히고 있다.

이번 여행으로 내 마음 속 추억의 책이 많이 두툼해 졌다. 이 행복한 마음을 오래 오래 간직하며 언제나 곁에서 같이 해 준 가족들에게 진한 감사의 정을 느낀다. (2016.1.14.)





읽을 만한 책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2 그리스 로마 문명과 미술

〈양정무 저 / 사회평론〉

미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은 물론 미술에 담긴 역사, 정치, 경제, 예술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또한 깊이 있게 다룬 책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제2권 《그리스 로마 문명과 미술》. 2권에서는 지금까지 서구 사회의 정신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 · 로마 문명과 미술이 어떻게 성장하여 꽃을 피웠는지 그 과정을 살핀다. 1부 '빛은 동방에서 왔다'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등 오리엔트 지역에서 발흥한 문명의 빛이 어떻게 그리스 지역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고, 2부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에서는 그리스 미술을 다룬다. 3부 '강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는 고대 로마인들이 어떻게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밝힌다.

미술세계

〈윤원화 저 / 워크룸프레스〉

분명 시간의 흐름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갑작스런 미래의 등장으로 현재의 무기력을 날려보내고 싶다는 조바심도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는 절박함도 있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요컨대 '젊은'이라는 수식어가 '미술가'에 대한 논의를 집어삼킨다는 것, 새로움에 대한 강박이 가짜 새로움과 가짜 미술을 범람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논란 속에서 어떤 미술이 있었는가? 또는 그 와중에 미술은 어디" 있었는지 다룬다.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1 원시, 이집트, 메소포타미

〈양정무 저 / 사회평론〉

미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은 물론 미술에 담긴 역사, 정치, 경제, 예술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또한 깊이 있게 다룬 책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제1권 《원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미술》. 책의 저자이자 미술사학계의 권위자인 양정무 교수는 한 권의 책 안에 방대한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모두 담아냈다.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미술 지식은 물론 학계를 선도하는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유명한 미술 작품부터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국의 미술까지 최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와 이론을 담았다.

현대미술 글쓰기 아트라이팅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길다 윌리엄스 저 / 안그라픽스〉

아트라이팅의 목적과 방식을 다루고는 있지만, 글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를 알아보고 뛰어난 아트라이터들이 그런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글쓰기의 방향을 잡고 자기만의 글을 개척할 수 있게 돕는다. 학술, 역사, 설명, 기사, 비평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우수한 글을 예시로 들어, 그것들이 왜 좋은 글인지, 거기서 무엇을 배워 자기 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책은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예술에 대해 생각하고 쓰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관에 간 화학자 이성과 감성으로 과학과 예술을 통섭하다

〈전창림 저 / 어바웃어북〉

명화에 담긴 과학적 창의력! 『미술관에 간 화학자』는 과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에 관한 이야기, 미술과 함께 하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명화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화학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미술의 태생적 기원을 화학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에이크, 밀레, 휘슬러, 미켈란젤로, 브뢰헬, 틴토레토 그리고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등 우리 화가들까지 조명하며 명화에 담긴 과학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물감의 화학적 질감으로 캔버스의 3D를 재현한 최초의 화가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에이크만의 섬세한 붓터치의 비법이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한 아마인유라는 안료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렘브란트와 밀레의 그림을 어둡게 변색시킨 화학물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등 명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감성과 인문적 소양일 키우며 그 안에서 과학적 사고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57
96 [redacted]
기획/제작 | 프리랜서 | 267-6-[redacted]
원미여행
01. 12. 2012 | 원미동
전북 전주시 고사동 2가 [redacted]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 2로
권선하늘 | 원미정보 박수수
원미동 | 원미동 사람들
2016년 봄권 제223호 전북출판회회
전북 전주시

[redacted]

송태정
이병철
홍 호
정미현
송현섭
이철규
이상락
이문복
이순실
이승훈
이우정
이인숙
이철규
이문자
이원희
이원기석
안소금
방정환

편.집.후.기

함박눈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 놓은 설경
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현대의 허울 좋은 고독의 광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사람은 사람의 자연을 가지고 자기를 잃지 않은 인간의 향수를
지닌 자연의 언어와 표정을 상실하지 않은 회화 회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삶의 목적이나 삶의 빛깔을 아주 정확하게
스스로 만들어 가며 쓸쓸한 현대를 소화해 내며
누구보다도 우수하게 일을 처리해 내고 있는 회원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맛보도록
옥고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회화회 회원들은 더욱 좋은 작품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속에서 풍성한 겨울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계획

- 5월 회화회 세미나
- 하계 MT
- 10월 정기전
- 12월 총회

전북회화

2016년 통권 제23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 방정엽
편집위원 | 방정엽, 박성수
전북회화 2016년 통권 23호
발행일 | 2016. 12. 10
대표연락처 | 011-681-7127
기획,제작 | 프린팅해븐 T. 287-9796, 010-7748-1236

2016

전북 회화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